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1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대외정책 비교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양 병

2011년 2월 석사학위논문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대외정책 비교연구 양 병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대외정책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Foreign Policies of Jiang Zemin and Hu Jintao

2011년 2월 25일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정 치 외 교 학 부

양 병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대외정책 비교연구

지 도 교 수 오 수 열

이 논문을 정치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25일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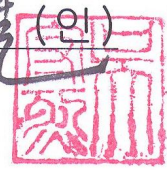
정 치 외 교 학 부

양 병

양병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미경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지병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오수열 (인) 

2010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표목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6
제1절 이론적 배경	6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7
제3절 분석틀	9
제3장 중국대외정책의 기초	14
제1절 중국대외정책의 목표	14
제2절 중국대외정책의 기본원칙	15
1. 평화공존 5원칙	16
2. 독립 자주·평화외교 정책	17
3. 통일정책	18
제3절 중국대외정책결정의 변수	19
1. 미국의 패권	19
2. 중국 지도부의 대외인식	20
3. 강대국과의 관계	21
제4장 장쩌민의 대외정책	22

제1절 장쩌민 대외정책결정 요인	22
1. 국내적 요인	22
2. 국제적 요인	26
제2절 장쩌민의 대외정책	30
1. 반패권주의와 다극화 외교	30
가. 반패권주의	30
나. 다극화 외교	30
2. 강대국 외교	34
가. 강대국 외교의 배경	34
나. 강대국 외교의 전개	35
제5장 후진타오의 대외정책	44
제1절 후진타오의 대외정책결정 요인	44
1. 국내적 요인	44
2. 국제적 요인	51
제2절 후진타오의 대외정책	54
1. 「韜光養晦」와 실리외교의 탈피	54
2. 강대국 외교	56
3. 다자외교	58
4. 경제외교와 소프트파워외교	59
가. 경제외교와 소프트파워외교 배경	59
나. 경제외교의 소프트파워외교의 성과	61
6장 결론	65
참고문헌	76

표 목 차

<표 1>기간별 년평균 GDP 성장률	34
<표 2> 사회주의 시장경제 출범 이전 중국의 미국에 대한 교역추이(1978-1992)	42
<표 3> 중국석유수입량과 소비총량	62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Foreign Policies of Jiang Zemin and Hu Jintao

Yang, Bing

Advisor: Prof. Oh, Soo-Yol, Ph.D

Department of Politics and Diplomac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China's economy has been greatly developed since the 30 years of its reform and opening up, especially under the difficult world economic background. China has become the world second largest economy, the first foreign exchange reserves and a new world power in the world with GDP average annual growth of 9%. However, China threat, China's responsibility and China's exchange rate problem also emerged into the world at the same time.

During the two ruling periods of Jiang Zemin and Hu Jintao, China's foreign policies changed fundamentall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reform and opening up. In Jiang Zemin's period, China succeeded in becoming the inside country of world system from the outside, actively engaged in foreign diplomacy, improved the relationships with well developed countries, and participated in all kind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l these were to create a favorable external environment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Under Hu Jintao's period, China has maintained rapid growth on economy and substantial increase in strength. So the foreign policies' trend changed from a single type to a round-type compound. China developed much more active foreign policies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 and tried to guide and lead its direction.

This thesis analyzed and compared China's foreign policies between governments of Jiang Zemin and Hu Jintao, predicted development direction of China's foreign policies and the affections on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Korea and the whole world.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외교는 전쟁 없이 협상을 통해 대립을 해결하려는 국제적인 행위자들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을 말한다. 외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대립 해결에 중점을 두는 상호작용의 형태를 나타내며 협력의 극단에 위치한다.¹⁾ 외교정책은 정식으로 지명된 국가사회의 관리들이 전임자 또는 그들 자신이 결정한 목표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국제체계 상황을 유지 또는 변경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행위과정이라고 한다.²⁾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외교정책이란 한 나라의 정책결정자가 타국 혹은 국제적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의 행위를 타국 또는 국제환경에 대해 적응시키고 타국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이고, 공식적인 행동지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³⁾

1949년 중국 건립이후 중국 대외정책은 국제 및 국내환경의 영향을 받아 많은 변화와 조정을 거쳐 왔다. 첫 번째 단계는 1949년부터 1982년까지로 사회주의 혁명의 건설과 국제주의, 애국주의가 강조되었던 시기로서 국내적 요인에 의해 외교정책이 결정되던 시기였다. 두 번째 단계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로 냉전체제의 와해, 중미 국교수립, 경제발전의 지속추구로 국외적인 요인이 의해 외교정책을 수립하던 시기로 대별할 수 있다.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1950년대의 친소일변도의 전면적 근대화 시기, 1950년대 후반부터 문화혁명 직전까지 자주노선의 모색시기, 문화혁명 시대의 고립주의 정책시기, 1970년대의 자주노선의 모색 시기, 마오쩌둥 이후의 친서방 문호개방⁴⁾ 정책 시기, 1982년 중공당

1) 존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편저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5), p.400.

2) James N. Rosenau, "Comparing Foreign Policy: Why, What, How" in James N, Rosenau, ed., *Comparing Foreign Policies: Theories, Findings and Method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4), p.6.

3) 이경숙, "한국의 대 미국 외교정책" 최종기 편, 『한국외교정책』, 서울: 한국국제관계연구소, (1988), p.29.

4) 1970년대 중·소 분쟁으로 중국과 소련이 거의 국교단절의 상태로까지 발전된 1970년대에 중국은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서방 산업국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며 1960년의 중간지대론(중래의 미·소를 중심으로 한 양대진영론을 수정하고 미·소 양대 강국과 구별되는 중간지대론을 제창함으로써 제3세계의 일원으로서 중국의 위치를 재정립)를 수정·보완하여 세계3분론을 발표하였다.

제12차 전당대회 이후의 자주노선의 모색시기, 천안문 사태와 동구권의 몰락이후 ‘전방위 외교’를 통한 자주독립노선의 강화시기로 대별할 수 있다.⁵⁾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건국이후 평화공존과 자주외교를 표방해왔으며 1953년 中印會談에서 주은래가 제창한 평화공존 5원칙⁶⁾을 외교정책으로 주장하고 있다. 2차 대전이후 형성된 냉전체제하에서 50년대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충돌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중국에 대한 경제봉쇄정책과 대만 지원을 통하여 중국 고립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속에서 중국은 1950년 말까지 친소대외정책을 고수해왔다. 냉전체제에서 마오쩌둥은 혁명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의 부당한 측면과 착취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대립과 경쟁, 사회주의 국가와 3세계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외교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이후 등샤오핑을 비롯한 중국지도자들은 소련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 대한 우려 속에 소련의 중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견제와, 중·소간의 국경문제로 중국과 소련은 갈등이 생기게 되고 소련은 중국에 대한 경제와 기술원조를 중단하게 된다.

혁명정권에서 혁명 후기 정권으로의 변화,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외교정책에 미친 영향은 각국 정책결정자들과 학자들의 폭넓은 관심을 가져왔다. 마오쩌둥 시대(1949~1976)와 등샤오핑 시대(1978~1997)에서의 국가 우선순위의 분명한 전환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마오쩌둥의 시대는 ‘혁명의 시대’ 라면 등샤오핑의 시대는 ‘현대화의 시대’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교원칙은 1982년 중국헌법에 明記되었으며, 1980년 후반이후 아세안 국가들의 성장,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 EC통합, 세계 경제의 블록화 등은 중국에게 위기감을 심어주었다. 이때부터 ‘신외교전략’이

5)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서울: 나남출판, 1999), pp.376-378. 楊公素교수는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 과정을 1949년 인민공화국 수립이후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1단계는 1949년부터 1982년까지로 사회주의 혁명과 그 건설을 주요 임무로 하고, 국제주의와 애국주의의 결합과 국제통일전선이라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대외정책을 펼쳤고, 제2단계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로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내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국은 1982년 중국공산당 12차 전당대표대회를 통해 대외정책을 대폭 조정하여 자주독립의 평화외교정책을 견지했다고 한다.(楊公素, “中華人民共和國外交理論與實踐”, (北京: 北京大學國際關係學院, 1997), pp. 12-15)

6) 이 원칙은 영토주권의 상호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 평등, 평화공존의 5가지 원칙이다. 이 평화공존5원칙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4년 4월 29일 중국과 인도가 체결한 티베트지방-인도 통상교통협정 이었고, 1954년 6월 28일 인도를 방문한 저우언라이(周恩來)총리와 인도 네루 수상과의 공동성명에서 공식 선언되었다. 현재 중국은 이 평화공존5원칙을 기반으로 시대별 상황변화에 국익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실사구시 외교노선을 전개 하고 있다.

추구되었는데, 중국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를 배격하고 스스로도 패권주의, 제국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중국은 영원히 3세계의 편에 서서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또한 영원히 우두머리가 되지 않는다는 정책을 수립함에 따라 덩샤오핑은 실용주의적 균형외교를 추구하게 되었고, 중국의 실용주의 정책에 입각한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중국의 외교노선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 중요한 사건은 1989년 6월에 발생한 천안문 사태였다. 인권문제를 둘러싼 서방세계의 압력은 중국의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견지하는데 커다란 제약이 되었다. 또한 1989년 지중해 몰타에서 열린 부시와 고르바초프간의 미·소 정상회담에서 냉전의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냉전체제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소련이 강제로 편입했던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위성국가들의 독립노선을 허용하자 종전 15개국으로 구성되었던 소련은 14개국이 독립함으로써 러시아공화국만이 남게 되어 1991년 소련연방이 공식 해체되었다. 중국 지도부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의 내적 원인으로 당의 부패와 경제몰락을 들면서 당 부패의 근절과 경제건설이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경제와 과학기술의 국제적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권 생존의 핵심임을 새롭게 인식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을 가져온 외부적 요인으로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개입과 전복공작이며 이에 편승한 부주르조와적 요소의 준동이라고 인식하고 ‘和平演變’에 대한 경계와 당의 사상적 통제를 강조하였다.⁷⁾

1989년 제13기 5중전회에서 지도체제를 개편⁸⁾한 후 국제적 고립으로부터의 탈피와 대외이미지 회복, 경제건설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방세계와 외교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과 다각적이고 폭넓은 외교를 넓힘으로써 새로운 외교시대를 펼치게 되었다.

탈냉전기 중국의 대외정책은 경제적 성장과 향후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에 힘입어 참여적이고 전방위적이며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이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양도할 수 없는 국가주권, 즉 국제관계의 웨스트팔리언적인 정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는 현대 국가간의 경계가 고도로 상호

7) 서진영, 전제서, p.385.

8) 1990년 6월 제13기 4중전회에서 짜오즈양 총서기는 민주화 시위를 지지, 당을 분열시켰다는 이유로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 등 모든 공직에서 해임되고 장쩌민 상해시 당서기 겸 정치국 위원이 총서기로 선출되며, 11월 6~9일 5중 전회에서 덩샤오핑은 당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사임하고 후임으로 장쩌민 총서기가 두 직책을 승계했다.

침투 및 침식하는 세계적인 상호의존성과 마찰을 빚고 있다.⁹⁾ 이러한 문제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라는 이름으로 세계화와 탈냉전시대를 향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2006년 기준으로 중국의 군사비 지출 순위는 583억 달러로 세계 3위, 병력은 2,255,000으로 세계 1위, GDP순위는 2,224,811백만 달러로 세계 4위로서 국제정치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여러 국력지표는 국제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2020년에는 국내총생산 4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로 증대되어 미국과 버금가는 강대국이 될 전망이고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에서 중상 정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⁰⁾

부강해진 중국은 대외국가에 작용하는 힘이 증대될 것이고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힘은 미국 일본에 비해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에게는 더 큰 영향력과 압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한반도의 비핵화, 한국의 경제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장쩌민-후진타오의 대외정책의 연구는 거대한 중국의 변화에 한국정부의 합리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본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의 대외정책을 연구 범위로 한다. 특히 중국 정치의 1990년~2002년대의 중국정치의 주역인 장쩌민의 대외정책과 2003이후 현재까지 중국정치의 주역인 후진타오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요인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크게 2가지로 보이고 있다.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국제체제의 힘의 분포가 중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대외정책결정이 초강대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예시를 하고 있다. 예를들면 공산정권 수립이후 중국 대외정책이 국제체제에서의 힘의 균형에

9) Shambaugh, David. "China 's Security Policy in post-Cold War era", *Survival*, Vol.34, Issue 2 (Summer 1992), pp.92-93.

10) 하영선 편, 『21세기 한국외교대전략』,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6), p.146

의해 영향을 받았고, 미·소의 양극체제의 제약을 받았다고 한다.¹¹⁾ 다음으로는 전통주의적,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적 시각은 중국대외정책결정에 국내적 요인에 그 변수를 찾는 이론적 시각이다. 공산정권 수립 초기의 대외정책결정은 전통적 요인이나 이데올로기 등이 대외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1960년대 마오쩌둥 시대의 대외정책은 마오쩌둥의 이데올로기적 목표들이 영향을 미쳐 고립외교를 취했다고 한다.¹²⁾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나라의 대외정책은 국내적, 국제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정책을 국제적, 국내적 요인 중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외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적, 국제적 요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제약요인하에 중국지도부는 국내적, 국제적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대외정책을 실현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간행된 도서, 보고서, 논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 논문은 총6장으로 구성되었고 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대외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사회주의 혁명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국 대외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그리고 제4장과 5장에서는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국내적, 국내적 환경하에 대외정책을 어떤 내용으로 결정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결론에 해당하는 제6장에서는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대외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차이점을 조명하였다.

11) Michael Ng-Quinn, "The Analytic Study of Chinese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27, No.2 (1983), pp.203-224.

12) Tang Tsou and Morton H. Halperin, "Mao Tse-Tung's Revolutionary Strategy and Peking's International Behavio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59, No.1 (1965), pp.80-99.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제1절 이론적 배경

중국은 1953년 대외관계에서 평화공존을 주장하면서 주권과 영토보존의 상호 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호혜평등 그리고 평화공존이라는 평화공존 5 원칙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처음에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용된 것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건설 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강했다. 중국은 덩샤오핑 등장 이후 1982년 12차 당대회에서 중국 대외정책의 기조로 독립자주의 원칙을 주장하였으며, 이후 이 기조는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결정에 대한 이론적 논쟁은 다음의 3가지 시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전통주의적 시각으로서 중화주의 또는 국수주의적인 관점이다. 중국의 문제는 순수한 중국문명의 정신과 가치를 회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을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에 입각하여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중국에 조공을 받치는 인접국가들을 주변국가,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특히 서방의 국가들을 야만인이라고 인식하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이 중국 중심사상으로부터 중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고도하게 강조하는 대외정책이 추구되고,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며 대국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중화민족의 위대성이 강조된다.¹³⁾ 둘째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주의적 시각은 중국대외정책결정의 결정적 요인을 이들 사상에 입각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이것이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다른 것은 중국의 혁명과정에서 중국이 습득한 ‘인민전쟁’의 개념과 통일전선의 개념이 포함된 것이다. 공산국가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초기에는 자산계급을 비판하는 무기였지만, 레닌에 와서는 이상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어 군중을 분기시켜 행동에 호소하는 수단으로 변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중국에 전파된 후 마오쩌둥은 이데올로기의 도구적 기능을 아주 철저하게 발휘시킴으로

13) Steven L. Levine, "Perception and Ideology in Chinese Foreign Policy", Thomas W. Robinson and David Shambaugh eds, *Chinese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43-44

서 인식론상의 비판적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상대방과 싸워 이기는 무기가 되었다. 모든 대외정책결정이 마오쩌둥의 사상과 개인적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⁴⁾ 전통주의적 시각과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주의적 시각은 차별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두 시각이 중국의 대외정책결정의 핵심요인은 역시 중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현실주의적 시각은 중국의 대외정책이 권력개념, 국가이익의 개념, 국제적인 제한요인 등에 기인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자신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대국가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들을 말한다.¹⁵⁾ 중국이 사회주의 혁명 이후 소련일변도 대외정책을 고수하다가 중소분쟁 이후 미국일변도의 대외정책을 유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국 혁명의 특이성과 마오쩌둥 사상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좌파의 견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과거의 국수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물질문명보다는 정신문명을 강조하고 혁명가치의 순수성을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수정주의 또는 자본주의적 영향이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것을 경계하였다.¹⁶⁾ 중국 대외정책은 1950년대에는 전통주의적 시각, 특히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식 시각에서 등샤오핑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를 거치면서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요인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크게 2가지로 보이고 있다.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국제체제의 힘의 분포가 중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다. 대외정책결정이 초강대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예시를 하고 있다. 예를들면 공산정권 수립 이후 중국 대외정책이 국제체제에서의 힘의 균형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미-소의 양극체제의 제약을 받았다고 한다.¹⁷⁾ 다음으로는

14) Benjamin I Schwartz, *Communism and China: Ideology in Flux*, (Cambridge, Mass: Havard University, 1968)

15) Whiting, Allen. "Chinese Nationalism and Foreign Policy after Deng", *The China Quarterly*, No.142 (1995), pp.285-316.

16) 서진영, 전계서, p.375.

17) Michael Ng-Quinn, "The Analytic Study of Chinese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전통주의적,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적 시각은 중국대외정책결정에 국내적 요인에 그 변수를 찾는 이론적 시각이다. 공산정권 수립 초기의 대외정책결정은 전통적 요인이나 이데올로기 등이 대외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1960년대 마오쩌둥 시대의 대외정책은 마오쩌둥의 이데올로기적 목표들이 영향을 미쳐 고립외교를 취했다고 한다. 18)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나라의 대외정책은 국내적, 국제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정책을 국제적, 국내적 요인 중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1960년대 미·소의 냉전구조속에서 중국은 국제적 요인만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소련일변도 대외정책결정을 해야 함에도 국내적 요인 때문에 미국과 소련에 대하여 적대적인 정책을 취했다거나 국제적 요인 때문에 구소련과의 동맹에서 탈퇴하여 구소련에 대항하여 미국과 전략적 제휴를 한 경우가 있었다. 국제적인 요인은 중국이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그 범위를 설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¹⁹⁾, 중국의 구체적인 행동영역에서는 국내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대외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적 요인으로는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사회의 신념 그리고 정부의 형태나 사회체제의 성격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중국 지도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지도부의 인식은 한 국가가 직면한 위협과 기회 그리고 적과 아를 정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의 경우 정책결정구조가 수평적이기보다 수직적인 권력구조이며, 상에서 하로 내려오는 하방의 문화 때문에 지도자의 인식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서방국가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정책결정에서 장쩌민 이후에는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의 연계가 더 증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²⁰⁾ 우선 대외정책결정에서 개인적 권위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 장쩌민은 등샤오핑이 가지고 있던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채 집단지도체제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권위보다는 관료조직에 더 의존했다. 이는 대외정

Quarterly, Vol.27, No.2 (June 1983), pp.203-224.

18) Tang Tsou and Morton H. Halperin, "Mao Tse-Tung's Revolutionary Strategy and Peking's International Behavio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59, No.1, Mar. 1965, pp.80-99.

19) 바흐만(Bachman)은 국제체제가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기 보다는 정책대안의 범주를 제한하는 제약요인으로 본다. David Bachman, "Domestic Sources of Chinese Foreign Policy", *Business Week*, 1991년 11월 11일자, p.46, Kim, Samuel S Kim ed. *China and the World: Chinese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

20) 이태환,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p.232.

책결정이 기능적으로 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미 정치적으로 강대국의 역할을 해 온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중국이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는 것 못지않게 중국의 국내 상황이 점차 대외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전문적인 대외정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들의 정책 제언이나 발언권이 강화되었고, 관료조직간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각 부처의 지도자, 정치지도자 및 전문가들이 동시에 참여하여 조정과 협의를 하는 기구로서 외사영도소조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후진타오시대에 들어와서는 연성권력의 강화에 눈을 뜨게 되었고 외교와 대외 정세 분석에 있어서도 정부기관 보다도 보다 다양한 형태의 외교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포럼외교”의 강화이고 그 대표적인 조직이 중공 중앙당교가 주관하는 연구기관인 “개혁개방논단”이며, 주로 국제 전략적 시각에서 국제 정치·경제 발전 동향에 관해 대내외 학자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광범위한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제3절 분석틀

그동안 중국대외정책 연구는 사회과학에 근거한 일반론 보다 중국의 문화적·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였으며 “사회과학적 방법과는 철저히 무관”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중국 특수적 이었다. 그러한 이유는 중국의 정치적 혼란과 활용가능한 자료의 부족 때문이었다.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 국가가 실행하는 대외정책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대외정책을 연구할 때 적절한 수준과 단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소개한 다양한 접근법들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²¹⁾

첫째, ‘단일수준접근법’ (single-level analysis)이다. 현실주의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국가의 대외정책을 국제세력간의 상호행위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제체제에서 생존해 나가는 것이 국가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규정한다. 현실주의 시각에서 볼 때 안보, 군사적 능력, 국가들 간의 정

21) 趙全勝 지음, 김태환 역, 『중국의 외교정책』, (서울: 도서출판오름, 2001), pp.41-63.

치적 동맹과 세력균형의 추구하고 같은 것들은 국가의 국제적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치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대외정책 수립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제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중국의 외교정책과 대외적 행동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한 적응이라고 본다. 그들은 초강대국 간의 양극상태와 같은 국제환경이 중국 외교정책의 선택범위를 얼마나 제한했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국제적인 요인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국 정치의 국내요인은 대외정책에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독자적으로 대외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과소 평가하게 된다.

한편 상호의존주의 이론가들²²⁾은 국제정치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복잡한 경로와 행위자들, 그리고 비군사적 수단 및 국제사회를 더욱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으로 만드는 경제변수들의 역할에 관해 연구한다. 이들은 국제정치경제를 강조하며, 국가이익을 규정짓고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과정’과 국내정치의 ‘영향’에 더욱 관심을 둔다. 이들은 대외정책에서의 국내정치의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1957년의 반우운동(反右運動)과 58년의 대약진운동 및 1966~1976년의 문화대혁명과 같은 중국의 내부 정치운동은 외부세계에 대한 중국의 자세에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적 결정요인을 강조하는 이들도 정책결정과정이거나 정치제도 혹은 정치문화 및 이념과 같은 요인에 지나치게 관심을 둔 나머지 결국 변화하는 국제적 환경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기 쉽다.

사회심리학자 또는 정치심리학자들²³⁾은 개인수준이 정책결정자의 성격·인품·신념체계·성장과정 등이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대외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정책결정자들의 역할은 대외정책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즉, 마오쩌둥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선호의 리더십이 중국외교정책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정책결정자 개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또한 정책결정의 요인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단점이 존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및 등사오핑에 이르기까지 지난 100여 년간의 중국 대외정책 형태를 ‘체면유지’라는 단일요소로 정형화 하는 것은 대외정책 형성의 배경을 설명하는 점에서

22) 바크만, 리버탈 등이 대표적 학자이다.

23) Tsou와 Halperin, Schwartz, Teiwes, 옥센버그 등이 대표적 학자이다.

는 유용성이 있으나 미리 정해진 외교형태에 결과를 끼워 맞춰야 하는 단점이 있고, 구체적인 국제상황과 외교 및 협상과정, 특히 정책의 선택과 선호문제가 복합되는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둘째, ‘복합수준의 접근법’ (multi-level analysis)이다. 로즈노는 (정치학: 국내와 국제체제의 수렴에 관한 소론) 한나라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데 있어, 정책투입요인으로서 ‘국제 제약요인’ 과 ‘국내 결정요인’ 의 영향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주장하였다. 로즈노우 교수의 대외정책분석틀을 정리해보면²⁴⁾ 첫째, 개인적 변수로 중국 대외정책의 최고결정자의 인식 및 가치관, 대외관을 들 수 있다. 중국이 다른 서구 국가들처럼 제도화, 법제화된 사회구조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할에 따른 정책결정보다는 역할을 맡고 있는 개인의 의식 및 가치관에 의해 대외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 및 정부 변수로서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 정부변수와 사회주의 체제 아래 정부변수와 수반되는 사회변수를 설정한다. 중국의 경우 공산당 영도하에 정부가 운영되는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마땅히 상반되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회변수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과 가장 상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변수를 사회변수로 보고 있다. 셋째, 체제적 변수는 중국의 건국시기부터 계속되어온 냉전이라는 양극체제와 90년대 이후 탈냉전 시기로 접어들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진 다극체제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계모델은 국내와 국제체제 간의 상호의존적이고 중복되는 부분을 강조한다.

퍼트남(Robert Putnam)에 의하며 외교정책 결정은 정책 결정자들이 국내정치와 국제무대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두가지 수준의 게임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퍼디난드(Peter Ferdinand)는 개혁·개방시기에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국내 권력관계를 재분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방 정부는 추가적인 자본과 기술 및 노하우를 유치할 수 있으며 그들의 경제적인 이해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시켜왔으며 이것은 점차 역으로 중국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외교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지방과 국내적 요인들이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촉발되어 더욱 중요한 외교정책의 구성요소로 자리잡았다고 주장한다.²⁵⁾ 한편 ‘행위자 특성이론’ (actor-specific

24) 주재우, “중국외교정책 결정요인의 시대적 특성 분석”, 『중국연구』 제34집, (2004), p.373.

25) Frerdinand, Peter, “Regionalism in Gerald Segal ed., Chines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Reform

theory)을 제정한 조지(Alexander George)는 외교정책을 분석할 때 미시수준의 요인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기존의 이론이 모든 행위국가가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행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국가를 이성적인 단일 행위자로서 간주할 수 있다는 단순한 가정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국내구조와 각 국가 및 지도자들의 행위유형 사이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 ‘행위자 특성’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대외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변수는 다양하고 외교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환경적 요소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외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방법을 아직까지도 미확립된 상태에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대외정책의 변화는 국제환경의 변화, 국내적 상황의 변화, 그리고 이 양자의 복합적 변화라는 동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²⁶⁾ 중소분쟁으로 문화대혁명의 원인이 되었던 경우는 국제적 요인이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고, 등소평 시대 현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一個中心과 경제성장과 4항 기본원칙이라는 二個基本点을 위해 개혁개방을 했던 경우는 국내정치가 대외정책결정에 국제요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대외정책결정에 있어 상관관계와 우선순위에 대한 논리는 정당성을 가늠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오히려 대외정책결정과정의 우선순위나 종속적 혹은 독립적 상관관계 보다는 요인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어느 상황에서 어느 요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두 요인이 상호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²⁷⁾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이 대외정책결정에 상호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를 토대로 중국 대외정책결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극체제의 대립은 마오쩌둥 시기의 대외정책에 우선적인 순위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할 수 있다. 공산정권 수립초기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전통적 요인이나 이데올로기 등이 중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다.²⁸⁾

”, London: Kegan Paul International, 1990, pp.135-158.

26) 이러한 분석은 Samuel S. Kim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Samuel S. Kim, *Chinese Foreign Policy in Theory and Practice in Samuel S. Kim, ed., China and World*, 4th edition(Boulder, Co.: Westview Press, 1998), pp.3-33.

27) 김승채, “강택민 등장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전망,”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2권 제1호, (1999) , p.48.

1960년대 중국이 고립을 선택하면서 분명해졌다. 특히 이 시기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마오쩌둥과 그의 이데올로기적 목표들이 중국의 대외정책에 끼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개혁·개방 초기에는 국내적 요인이 중국의 외교정책에 더 중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제3세대 지도부²⁹⁾인 장쩌민과 제4세대 지도부인 후진타오 시기에는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이 동시에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대외정책결정이 국내·국제적 상황 속에서 중국의 국가목적적인 경제적 현대화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중국대외정책³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속에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즉 국내적으로는 지속적 경제성장, 정권의 정당화, 권력의 강화, 분배 불평등 해소와 국제적으로 미국이라는 패권국가의 존재 속에 중국의 경제성장, 평화굴기, 평화발전의 중국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대외정책결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지는 대외정책의 변화과정과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는 살펴보려고 한다.

장쩌민 시대의 대외정책의 전개는 냉전체제의 급격한 붕괴와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라 경제발전과 사회주의 체제가 충돌한 경험이 대외정책에 반영되었고, 후진타오 시대는 탈냉전상황이 심화되어 새로운 형태의 국제체제인 다자간 협력체 속에서 평화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대외정책을 전개했다.³¹⁾

28) Bin Yu, "The Study of Chinese Foreign Policy : Problems and Prosoect", *World Politics*, Vol.46, No.2 (1994), pp.235-261.

29) 세대구분이란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면 일반적으로 중국 연구자들이 분류하는 세대구분은 다음과 같다. 마오쩌둥 등 대장정(1937-1945)에 입당한 지도자들을 제1세대, 덩샤오핑 등 주로 항일전쟁시기(1937~1945)에 입당한 지도자들을 제2세대로, 장쩌민을 비롯한 내전시기(1945-1949)에 입당한 지도자들을 제3세대, 그리고 후진타오 등과 같이 주로 1941년과 1956년 사이에 입당한 지도자들을 4세대 지도자라고 한다.

30) 그동안의 중국 대외정책은 마오쩌둥의 시기에는 국내적 요인중 개인적 요소가 가장 민감하게 작용했으며,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는 개인적 요소들이 마오쩌둥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었다. 이는 것은 문화대혁명의 과오를 반성하고 헌법의 수정을 통해서 개인의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등 개인적 인 요소가 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타파하려고 노력했다.

31) 주재우, *전개서*, p.375.

제3장 중국대외정책의 기초

제1절 중국대외정책의 목표

중국 대외정책의 목표는 전통성 및 역사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중국인들이 오랜 동안의 역사적 체험을 통해서 필연코 달성해야만 하는 당위적 목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변적이며 영속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외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 적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관심이 표명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중국연구자들이 임의적으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인들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결과로서 무력수단의 행사나 시위를 불사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외정책목표를 제시하자면, 독립자주, 평화공존, 반패권주의, 하나의 중국 및 경제건설을 지향하고 있다.³²⁾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의 외교목표는 나름대로의 형성배경을 지니고 있다. 한 국가의 외교목표가 형성되는 요인을 임의적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중국의 경우도 그 예외는 아니다. 중국에 있어서 외교목표의 형성배경이 중국적이거나 아니면 공산주의적이거나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오히려 양자를 포용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 중화사상(中華思想)이다. 중국의 중화사상은 전통의식에 근거하여 과거 중국의 종속국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고 대한족(大漢族) 우월주의로써 주변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저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대국주의 요인은 상하와 주종을 전제로 한 위계질서의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서, 주변 제국과의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 하겠다.

둘째, 중화사상과 관계되는 민족주의가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 민족주의는 교의상으로 보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는 서로 융합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대 중국인의 의식 속에 양자가 모두 용해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32) 오용석, “중국대외정책의 원칙 및 목표의 지속과 변용”, 『중국연구』, 제19권, (2000),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p.31.

이다.

셋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공산정권 수립기를 전후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마오쩌둥사상을 대외정책을 결정·추진하는데 있어 구체적 실천이념으로 동원했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은 대외정책의 목적은 주권과 영토보전, 국가통일, 사회주의 체지와 이데올로기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대외정책의 목표로 3가지로 정하고 있다.³³⁾ 첫째, 중국의 현대화와 경제발전에 유리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세력의 봉쇄정책을 저지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평화와 발전시대에 중국의 대외정책이 추구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통해 현실문제를 해결하고, 오랜 현대화의 숙원인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 강대국의 위상을 찾는 것이다. 2002년 공산당 16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는 향후 20년을 위대한 중화민족의 중흥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보고 경제발전을 통해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한다는 국가계획을 제시하였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므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과의 패권경쟁을 피하고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제2절 중국대외정책의 기본원칙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은 독립자주, 평화공존, 반패권주의, 하나의 중국 및 경제건설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마오쩌둥이 기초하여 1949년 9월 30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1차 회의에서 발표된 선언문의 결론은 “독립, 민주, 평화, 통일 변영의 신중국 건설” 이었다.³⁴⁾

이 때 수립된 외교원칙은 그 후 중국외교원칙의 기본 토대가 되어 그 후 발표된 많은 외교원칙에 영향을 미쳤다.

33) 차창훈, “21세기 중국의 외교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 1호, (2007), 한국정치외교사학회, pp.188-189.

34) Mao Tseting, “Long Live the Great Unity of the Chinese People!”. *Selected Works of Mao Tseting Vol. v*, (Peking : Foreign Language Press, 1977), p.21.

1. 평화공존 5원칙

평화공존 5원칙은 일명 평화공존 외교 5원칙 또는 평화 5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 원칙은 중국이 1950년대 중반의 국제환경과 레닌의 평화공존의 기초위에서 제기되었다. 중국이 제국주의의 침략·간섭 봉쇄 및 다수 국들과의 광범한 통일전선 형성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영토의 보전과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불간섭,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으로 1956년 9월 제 9기 전인대에서 평화공존 5원칙이 구체적으로 명기됐다. 평화공존 외교 5원칙³⁵⁾은 1954년 4월 체결된 중국·인도간 및 네팔·인도간의 통상·외교협정 전문에서 처음으로 제창했으며, 1954년 주은래(周恩來) 총리가 네루 인도수상 접견 시 평화공존 5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평화공존 외교 5원칙은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29개국 수뇌부가 참가한 반둥회의를 거치면서 중국외교의 필수적 기본요건으로 확립되었고, 이후 제3세계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발전을 지도하는 외교원칙이 되었다.³⁶⁾ 이 원칙은 제 1차 아·태회의에서 주은래 총리가 ‘평화공존 5원칙’을 확대 발전시켜 ‘평화 10원칙’으로 제시되었다.

평화 10원칙은 “반둥10원칙”이라고도 하는데 ①기본인권 및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 ②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의 존중, ③모든 인종의 평등을 존중하고 모든 대소국가의 평등을 인정, ④타국에 대한 내정불간섭 및 불개입, ⑤UN헌장에 따라 단독 또는 집단적 자위를 행하는 각 국가들의 권리존중, ⑥집단방위 계획이 특정 강대국의 특수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⑦어떠한 국가도 타국을 압박하지 않음 침략행위, 침략위협 또는 무력사용 등으로 다른 국가의 영토와 정치독립을 침범해서는 아니 됨, ⑧UN헌장에 따라 회담, 조정, 중재 혹은 사법 해결 등 평화적 방법 또는 자신이 선택한 평화적 방법으로 국제분쟁을 해결, ⑨상호 이익과 협력 촉진 ⑩정의와 국제의무의 존중이다.

이후 발표된 외교원칙은 1969년 4월 당 제 9기 전인대에서의 정치보고에서 발표한 외교 3원칙으로 대외적으로 중국이 소련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독립 자주 외교노선을 추구하게 되고, 대내적으로는 문화대혁명의 추진 과정상 부작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수립됐다. 내용은 사회주의 제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피압박 인민과 민족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며, 평화 5원칙에 기

35) 毛澤東, “關於中間地帶和平共處以及中英中美關係問題,”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編, 『毛澤東外交文選』(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4), pp.177-186.

36) 梁守德, 『國際政治學概論』,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1994), p.266.

초하여 사회제도가 상이한 제국과의 평화공존 추구 및 제국주의 침략정책과 전쟁 정책 반대한다는 것이 내용으로 되어 있다.

1985년 10월 호요방(胡耀邦) 당총서기가 '차우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을 환영하는 무한(武漢) 대중집회에서 중국외교 8개 불변원칙을 천명했다. 중국외교 8개 불변원칙의 내용은, 평화공존 5원칙에 입각, 세계 각국과의 우호관계를 수립·발전시킨다. 독립자주 외교정책을 추진하며 어떠한 대국이나 국가집단에 종속되지 않고 이들과의 전략·동맹관계를 수립하지 않는다. 평화애호국가 및 인민과 함께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어떠한 패권주의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세계평화를 옹호한다. 대외개방을 견지하고 평등호혜의 기초 하에 세계 각국과의 경제·기술교류 증대와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 3세계와 영원히 같은 입장에 서며 상호 동정하고 지지한다.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원칙을 견지하고 신의를 존중하며 새 친구를 사귀기 위해 결코 옛 친구를 버리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를 고려하지 않으며 우리 민족의 존엄을 해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총 10개항으로 되어 있다.

2. 독립 자주·평화외교 정책

독립자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외정책은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어느 초 강대국에 의존하거나 이데올로기 집단에 가담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과 사안에 따라 독자적 입장을 정립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³⁷⁾ 독립자주의 원칙은 개혁·개방체제 아래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1986년 3월 25일 제 6기 전인대 제 4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조자양(趙紫陽) 총리가 '제7차 5개년 계획 초안' 보고서³⁸⁾를 제시하면서 독립자주·평화외교 10원칙을 천명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세계평화 유지, 보호와 각국과의 우호협력발전 및 경제 공동번영 촉진을 대외업무의 근본목표로 하며 2) 세계의 모든 국가는 평등하여야 한다. 3) 어떠한 시기와 상황에서도 독립자주를 견지하며 모든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4) 초강대국과의 동맹·전략관계를 결코 맺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는 공동성명서에 수립된 원칙하에 양국관계의 착실한 발전을 계속 추진하며 소련과는 3대 장애요소 제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선행될 경우 진정

37) 오용석, 전계서, p.34.

38) 第六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四次会议简报 (http://www.npc.gov.cn/npc/dbdhhy/content_5600.htm)

한 양국관계를 개선한다. 5)평화공존 5원칙을 고수, 세계 각국과 관계정상화를 도모하며 사회제도 및 이념차이로 국가간 관계를 결정하지 않는다. 6)중국은 제 3세계에 속하며 제 3세계 국가와의 유대 및 협력강화가 대외업무의 기본방침이며 제 3세계에 국가의 민족경제 발전, 남북관계 개선 도모와 남남협력 발전 노력을 지지한다. 7)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바에 따라 군비경쟁을 반대하며 이러한 경쟁을 우주공간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핵무기의 생산금지 및 완전 폐기를 제안한다. 8)대외개방정책을 장기간 지속할 것이며 평등과 상호 이익의 기본 원칙하에 다른 나라들과 경제·무역 및 기술접촉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모든 국가에 개방정책을 실시한다. 9)UN헌장에 제시된 유엔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UN의 사업을 지지하며, UN 기관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10)다른 나라 인민들 간의 접촉에 중요성을 두고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해 각국과의 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의 접촉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다.

200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16전대회에서 장쩌민 총서기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시대적 특징을 지적하였다.³⁹⁾ 평화와 발전이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시대적 주체가 되고 있고, 세계정치의 다극화와 경제의 세계화 추세가 21세기의 지배적 현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민족, 종교모순과 국경 및 영토분쟁의 국부적 충돌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국제질서를 회복하고 패권주의를 반대하기 위해 중국은 독립자주·평화외교노선을 견지할 것이며, 중국외교정책의 근본목표는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결국, 독립자주·평화외교 정책의 목적은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국가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평화적 국제환경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 실리추구를 통한 경제 발전인 것이다.

3. 통일정책

통일정책은 ‘1국가 2제도’ 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중국이 국가통일 실현의 목적으로 생각해 왔던 구상이다. 건국 당시의 중국은 홍콩,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지 않았었고 대만 역시 통일되지 않았던 이유로 중국은 통

39) 『人民日报』, 2002년 11월 17일자.

일의 노력을 위해 힘을 쏟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1국가 2제도’의 구상은 1970년대 말 중공 제11기 3중전회 이후 점차적으로 발전된 것으로 하나의 중국 하에서 국가의 주체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홍콩과 마카오와 대만은 본래의 국가 특징인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켜 이 원칙에 따라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1국2제도에 의하면 첫째, 타이완은 조국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무장을 해체할 필요가 없으며, 통일 후에도 보안유지를 위한 군대는 허용될 것이다. 둘째, 통일이후에도 타이완 인민이 원하는 기간동안 완전한 자치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셋째, 통일이후에도 타이완 당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유지될 것이다 라고 1979년 1월 덩샤오핑이 미국 상원의원단과 회담에서 밝혔다.⁴⁰⁾ 또한 이 구상은 중국정부의 통일 방침으로 되었으며, 통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국제상의 유사한 문제 및 다른 중대한 국제분쟁 해결에도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권한들을 나름대로 인정받으며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제3절 중국대외정책결정의 변수

1. 미국의 패권⁴¹⁾

중국의 부상이 국제체제의 구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국제체제의 지배적인 행위자는 아니다.

2004년 기준 중국 1인당 GDP는 한국의 11분의 1로서 그 동안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1인당 경제규모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35분의 1, 일본의 31분의 1 수준이며, 2008년 기준으로 3,291달러로서⁴²⁾ 미국은 동

40) 김하룡, 『중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1986), p.409.

41) 현재의 국제체제 성격에 대하여 미국중심의 단극체제라는 주장과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어 단극체제를 운영하기에 역부족이므로 다극체제라는 상반된 주장이 있으나 현행은 단극과 다극이 공존하는 단극적 다극체제라고 한다. 울포스는 현국제체제가 완전히 미국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그 지속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만이 군사적 자원, 경제적 능력, 국제적으로 효율적인 정치력의 3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조순구, 『국제관계론』, (서울: 법문사, 2009), pp.387-388.

42) 세계 90위이며 전체 GDP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30701032132310004>.)

년 기준 4만 5489달러에 비해 중국 미국에 비해 14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후 중국이 경제적 총량 면에서 미국에 필적하게 되더라도 1인당 GDP에서는 한동안 격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이 2015년에 GDP총량에서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OECD의 연구도 1인당 GDP면에서 중국이 여전히 미국의 21%에 불과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질적인 측면에서의 격차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로 하여금 2020년에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 여전히 국력상의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군사비 지출액이 약 5300억 달러, 중국이 500억 달러로서 미국이 급격하게 군사비를 축소하거나 중국이 전 국력을 군사력 확장에 집중하지 않는 한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중국이 부상하지 못하도록 견제(containment)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중국에 대한 개입(engagement)을 통하여 경제적 혜택을 주는 동시에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탈냉전 이후에도 군사적 견제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인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베트남과의 항공모함 합동군사작전, 카자흐스탄지원 등으로 중국의 팽창에 대항하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국 봉쇄작전에 대한 중국은 적극적 대응을 통해 미국 패권주의를 제어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대미정책을 취할 수는 없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연평균 9%의 경제성장을 해왔고, 인민들의 경제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고 중국의 경제성장에는 미국의 자본, 기술,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국지도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초강대국인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인식하에 미국과의 갈등과 대립을 피하는 대외정책을 지속해 오고 있다.

2. 중국 지도부의 대외인식

중국지도부는 국가와 국력의 관계 속에서 대외관계를 본다. 국제관계는 강한 국가들이 힘을 이용하여 패권적 특성은 나타내고, 힘이 약한 국가는 강한 국가의 힘의 논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근대 중국의 역사에서 자국이 강대국에 유린당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주권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는 주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지도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

선하는 것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평화적 국제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 지도부의 대외인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경제발전으로 대외적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강대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안정적 국제환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강대국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중국위협론에 따른 反中連帶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다양한 국제조직에 가입하게 된다.

3. 강대국과의 관계

동샤오핑 이후 중국은 강대국 지위를 갖으려는 노력을 해왔다. 1997년 동아시아 경제외교에 직면해서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했다. 강대국 지위의 추구는 2003년 말부터 제기되고 있는 평화적 부상이라는 구호속에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평화적 부상을 위해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 문제까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이를 동원하고 활용할 능력을 지녀야 한다. 중국이 이렇게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곧 자국의 국력과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에서 6자회담의 주최국이 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가 동남아를 급습했을 때 위안화의 평가절하 여부를 자국의 국제적 지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았다. 또한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과 국제사회 간에 형성된 밀접한 연계를 깨닫고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필요성을 절감했다.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미국과 지역국가들이 공동으로 중국을 견제하도록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4장 장쩌민의 대외정책

1절 장쩌민 대외정책결정 요인

1. 국내적 요인

등샤오핑은 1980년 1월 16일 중앙간부회의에서 반패권주의, 조국통일 및 경제건설 3대과업 가운데서 대내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제건설이라고 강조하고 경제건설의 성과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⁴³⁾ 그는 중국국가의 중심 과제를 계급투쟁에서 국내경제건설로 전환하였고, 그에 따라 국내 경제건설을 위한 평화적 국제환경 조성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장쩌민은 등샤오핑이 내세웠던 중국현대화에 대한 목표를 계승하여 달성해야 했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권의 대중국 봉쇄정책 때문에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장쩌민 시대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쩌민 시대 중국지도부는 국제정세를 ‘평화와 발전’의 시대, ‘다국화로의 발전’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경제발전을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건설과 이를 위한 국제정세의 안정을 최대의 외교적 과제로 설정하였다.⁴⁴⁾ 국제사회에서 강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인에게 일깨워 주었고, 강자가 되려면 반드시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등샤오핑 이래 중국지도자들의 한결같은 의지였다. 장쩌민 시대는 경제발전이 최대의 국가적 과제라고 선언하면서 개혁·개방을 통해서 무역의 확대, 외국기술과 자본의 도입, 또한 국제경제체제의 편입을 지속적으로 도모하였다.

둘째, 정책결정과정의 전환기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장쩌민은 권력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국내의 보수층의 입장을 반영해야 했고,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대미관계를 비롯한 주변국가와 관계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장쩌민 개인의 인식과 사상⁴⁵⁾보다 국제적인 환경요인을 고려한 대외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⁴⁶⁾

43) 鄧小平, 『鄧小平選文輯(1975-1982년)』, (北京: 民族出版社, 1983), pp.264-265.

44) 류동원, “21세기 중국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대학정치학회보』, 제 11집 2호, (2003) . p.2.

국제환경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욱 복잡화, 다양화되는 국제환경과 더불어 국내환경도 다양화되어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시대처럼 정책결정자의 인식과 사상이 대외정책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1990년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은 1980년대 정책결정과정의 특징인 개인지도자의 주도적 역할과 새로운 추세인 제도화 사이에서 전환기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렇듯 장쩌민 시대의 중국의 외교는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환경에 직면하면서 외교역량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장쩌민은 대외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단일한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정책결정방식은 합의를 중시하는 집단적인 성격이 강화되었고, 전문가들의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1990년 초에는 전문외교관 출신으로 정치국원이 된 우쉐첸(吳學謙)이,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첸지첸(錢基琛)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권력구조가 집단지도체제로 변함에 따라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이들 이해집단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할을 의사영도소조가 담당하였다. 특히 장쩌민을 비롯한 지도부가 대외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관료조직과 싱크탱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됨으로써 이들의 역할이 중요시 되었다. 의사영도소조는 지도부와 기능적인 관료부처 간에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의사소통, 이견조정 및 정책집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며 1980년대에는 의사영도소조의 조장을 권력의 2-3인자가 그 조장이 되었으나 1990년대 말부터는 당총서기가 조장을 맡았고 후진타오시대 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셋째,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서방과의 우호관계를 회복해야 했다.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무력진압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경제제재가 있었고 경제발전에 매진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으로서 서방과의 우호관계를 회복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었다. 중국의 국가목표는 여전히 경제발전이었고, 경제발전을 위한 유리한 국제환경조성, 즉 경제외교의 강화를 중국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국제정세가 다극화로 발전하고 있으며 패권주의와 강권주의가 국제질서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반패권주의’와 ‘다자외교’를 강조했다. 냉전종식으로 평화로운 국제환경이 조성되었고 국내

45) 1997년 제15차 전국대표회의 이후 장쩌민 계열의 기술관료형의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정치적 기반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장쩌민 개인의 인식과 사상이 정책결정에 많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46) 주재우, 전계서, p.380.

적으로는 경제개혁을 통한 경제발전과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분출되기 시작했다. 냉전의 해체는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고, 각국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이 요구되었다

넷째, 장쩌민은 정치체제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 체제로 경제발전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러나 천안문 사태로 상해시 당서기에서 중국공산당 서기에 발탁된 장쩌민으로서는 자신의 지지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군부로부터도 확고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장쩌민의 권력기반이 허약해서 권력투쟁과정에서 나타날 중국 정치체제를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장쩌민의 권력을 철저히 지원함으로써 허약한 권력을 강한 권력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덩샤오핑의 주장에 따라 중국정부는 생산력 발전을 촉박하는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를 거시적으로 조절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채택을 결의하고⁴⁷⁾ 1993년 3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는 헌법 제15조에 ‘계획경제’ 실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 실시로 수정했다.⁴⁸⁾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이 자본주의는 물론 중국 전통사상의 계승성에 대해 역설하면서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우리는 중화민족의 우량한 사상·문화적 전통을 계승·발양하고, 발전된 인류문명의 모든 우수한 성과들을 흡수하여 인류 선진의 정신문명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는 개방적인 세계이고 각 국간의 경제·과학·기술의 교류와 연계는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다. 어느 국가도 세계경제체제 밖에 고립된 채 경제의 신속한 번영과 발전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참조해야 하고,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를 참조해야 하며, 협력·공존해야 한다. 일구양제(一球兩制:한 지구에 두 종류의 제도)라는 공통된 인식이 되었다.⁴⁹⁾

다섯째, 개혁·개방이후 덩샤오핑의 선부론에 의해 야기된 빈부격차의 모순을 해결해야했다. 개혁개방정책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인민들의 수준에서 본다면 과거보다 못한 형편이 도래했다. 능력이 없는 자

47)中国共产党第十四次全国代表大会(http://news.xinhuanet.com/ziliao/2003-01/20/content_nt_697129.htm)

48)中华人民共和国宪法修正案(http://www.npc.gov.cn/npc/flsyywd/xianfa/2010-04/14/content_1567089.htm)

49)中国共产党第十四届中央委员会历次全体会议(http://news.xinhuanet.com/ziliao/2003-01/20/content_697152.htm)

혹은 노력을 하지 않는 자는 먹고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그동안 등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은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많은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전에 비해 더 삶이 궁핍하게 되었다.⁵⁰⁾ 2003년 기준 중국에는 8억 여 명의 농민이 있으며,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많다. 하지만, 그들의 소비는 매우 미미하다. 예를 들어, 2000년 중국 최종소비는 5조 4,617억 2천만 위안인 데, 그 중 농민소비는 1조 1,706억 위안으로 소비 총 지출액의 27.3%에 불과하다. 또한 농가 수입이 도시 소득과 동일한 속도로 증가한다면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 해소에 3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농촌 소비가 향후 10년 이내 현재의 도시소비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⁵¹⁾ 그리고 중국 연안과 내륙의 격차는 공식적인 통계로 2배를 초과하고 있으나 성, 시별로 비교하면 수준차이는 5~6배에 이르며 실제 체감격차는 수십배에 이른다. 그 원인은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 유도와 선진기술의 흡수를 위한 무역과 투자 상 각종 혜택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연안지역의 소득이 훨씬 높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경제특구에 대한 혜택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지금까지 성장을 이끌어온 해외투자가 빠져나갈 것으로 우려된다.⁵²⁾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중국의 관료와 기득권층들이 개혁개방을 통하여 자본과 권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중국 관료자본주의의 기득권층은 사회주의식 경제체제로 다시 환원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⁵³⁾ 그렇다고 개혁·개방정책을 포기하고서는 국제경제체제에 적응할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은 중국의 현대화와 경제발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것이며, 중국을 다시 빈곤국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므로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중국은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할 하기 위해서는 생산력 발전, 시장경제질서를 계속 추진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등 서구 및 일본과의 화해 협력을 통한 개혁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했다. 그러나 개혁개방, 시장경제질서가 가속화될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의 모순을 해결해야 했다.

여섯째, 경제성장으로 인한 인민들의 다원화요구에 맞춰 정치체제의 개혁과 부

50) 張保民, “中共開放政策所帶來的社會問題”, 『中共問題研究』, (臺灣: 國立政治大學國際關係研究中心, 1992), pp.61-62.

51)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KITA CHINA

52) 『조선일보』, 1997년 2월 22일자.

53) 『주간조선』, 1995년 2월 16일, pp.96-97.

정부패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이 경제개혁을 실시하는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장애요인은 당간부들의 부정부패, 뇌물, 당기문란 등의 경제적인 환경과 질서의 파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중국의 경제적 손실은 GDP의 13.3~16.9%에 이른다고 한다.⁵⁴⁾ 인민들의 경제성장에 따라 정치개혁의 욕구가 서서히 싹트고 있음에도 중국의 관료, 당체제의 부패정도는 심각한 정도이며 망국망당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이다.⁵⁵⁾ 경제성장으로 시민들의 다원적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민주정치발전을 통하여 인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야 하며, 당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하는 정치적 민주화도 이루어야 했다. 정치발전은 과거 후야오뵙과 자오쯔양을 최고 지도자의 길로 향하는 것을 가로막은 적이 있으나 인류국가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추구해 나가는 정치제도인 동시에 국가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제적 요인

첫째, 장쩌민 시대는 국제정세의 주제를 평화와 발전이라고 인식했다.⁵⁶⁾ 양극 체제 해체 이후 탈냉전의 시대는 ‘일초다강’의 신국제질서의 추세이며 이는 다극화의 ‘초급단계’로 인식하면서 국가 간의 협력과 교류가 확산된다고 판단하였다.⁵⁷⁾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붕괴에 의한 사회주의 세력의 약화와 더불어 1989년 천안문 사태의 발생과 이에 대한 서구의 대중제 재조치로 인해 새롭게 탄생한 장쩌민 체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고, 그에 따라 평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외교정책을 수정과 동시에 보완하게 되었다.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인한 서방국가들의 제재조치가 완

54) 胡鞍鋼, “中國90年代後半期腐敗造成的經濟損失,” 『國際經濟論評』, (5-6期, 2001年), pp.12-21.

55) 『人民日報』, 1995년 1월 25일자

56) 97년 9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5차 전당대회에서 장쩌민 총서기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중국은 다 음과 같은 세기적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첫째로 탈냉전시대의 특징 은 평화와 발전이 시대적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 둘째로 세계구조도 다극화의 추세가 지배적 현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 지금까지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산출해 냈지 만, 선진국가들과의 경제적 과학·기술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상당기간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 끝으로 중국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국가적 목표 는 전면적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21세기에는 부강한 통일 민족 국가로 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江澤民 “高舉鄧小平理論偉大旗幟, 把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全面推向二十一世紀-在 中國共產黨第十五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日報』, 1997년 9월 21일자 참조)

57) 陳小功, “世界正處重要的過渡時期,” 『世界知識』, 第一期, (1992), p.4.

화되면서 대내외적으로 자심감을 회복한 장쩌민은 대미, 대일 경제적 협력관계의 강화라는 기존의 노선에서 정치, 경제관계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전방위 외교’로 전환하게 된다. 주변국들간의 선린우호 관계발전, 제3세계와의 협력강화, 서방선진국과의 우호 및 경제관계의 발전, UN외교의 강화, 국제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중점 강조하였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일초다강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이 변화게 되는데 중국은 다극화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권력구조는 21세기 초의 10년 이내에 정식으로 형성될 것이고 냉전후의 과도는 종료될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게 된다.⁵⁸⁾ 그러나 1990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개된 나토에 의한 코소보 폭격은 국제체제가 다극화되고 있다는 중국의 평가가 아직은 이르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국제체제가 다극화 되고 있다는 중국의 인식과 달리 미국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유엔을 무시하고 NATO를 통해 공습을 주도했고, 중국이 다극화를 선호한다고 간주했던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정책을 지지했다. 미국이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해 세계여론을 주도하려 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견제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라크 전 이후 미국의 독주와 일방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중국 지도부는 인식했다. 즉, 미국은 구소련 붕괴이후 정치, 군사, 경제 과학기술과 사상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이러한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9-11 이후 세계적인 범위에서 반테러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향후 15~20년 내에는 지구상의 어떠한 국가나 세력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⁵⁹⁾ 이것은 중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세계속에서는 여전히 변방의 위치를 보여주는 예였으며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패권을 제어할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일초다강론은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대립을 신중히 하고 대미관계를 더욱 증시하는 가운데 미국과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다극화 가속론자들은 미국을 포함한 여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을 대등한 극으로 상정하는 다극화 촉진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위협론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었다. 중국은 최근 들어 급속한 경제성

58)같은 맥락으로 중국청년보는 중국외교관리의 말을 이용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정세는 대체로 안정적이고 다극화의 방향으로 발전된다고 하였다. 『中國青年報』 (2002년 4월 11일)

59)류동원, 전게서, p.6.

장을 계속하면서 국방비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99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1.9%와 특히 구매력 지수에 근거한 평가에서 2010년을 전후하여 경제규모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⁶⁰⁾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위협론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군사현대화와 국방예산의 증대와 무기구입 등을 통한 군사력 증대도 중국위협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국방비는 1989년 12.6%를 시작으로 1990년 대 초반 평균 13%, 그리고 1995년에는 21.5%의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98년 12.8%⁶¹⁾를 기록하여 지난 10년 동안 두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 국방비 증가율을 수치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군 연구개발비는 과학기술비에 포함되며, 무기수출에서 얻는 외화는 군수산업에 재투자 됨으로써 군의 현대화를 돕고 있으나 국방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방세계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늘어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군사강국으로 성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 노력은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주변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의 국방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의식을 증대시킴으로써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군비증가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방 서방국가들의 중국위협론 제기에는 중국의 성장이 지역질서,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주장은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함으로써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잠재적 위협대상인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⁶²⁾ 또한 중국은 중국위협론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1997년 9월 ‘15전대회’에서 확정된 군현대화 계획에서 장쩌민은 2000년까지 50만 명의 병력감축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0년 10월 ‘국방백서’에서 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추구하고 패권주의를 결코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2000년 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의 5%, 일본의 30%, 영국의 40%에 불과하고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⁶³⁾

60) 김재철, “중국위협론의 한국적 의미,” 『국방학술논총』, 제11집(I), (1997), pp. 59-60.

61) 『한겨레신문』, 1999년 3월 1일자.

62) 席來旺, 『21世紀中國戰略對策划:外交謀略』, (北京: 洪旗出版社, 1996), pp.271-279.

63) 『연합뉴스』, 2000년 10월 16일자.

탈냉전 이후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 후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인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을 중심으로 세력확장을 해오고 있으며 동북아에서는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견제하고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북한과는 전통적인 선린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셋째, 1980년대 덩샤오핑의 실용 노선의 등장 후에 경제 건설은 중국 제일의 과제로 등장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공산권 나라들의 붕괴는 중국 외교 수행에 있어 새로운 문제를 제기시켰는데, 경제건설을 제1의 목표로 하는 점은 그대로 하고, 대외적 환경은 그 이전의 국제질서와 근본적으로 다른, 즉 탈냉전시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특히 천안문 사태 발생 후에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로부터 경제제재조치를 받게 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개방정책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대외정책을 이데올로기나 안보에 대한 커다란 구애를 받지 않고 적극적인 경제건설을 위한 대외 협력적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세계화는 개별국가에게 경제적인 개방성을 대한 동기유인을 증대시키고 국가의 선택을 더욱 제약하는 조건을 창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자신의 발전전략의 성공전략을 재검토하게 되고 세계화의 환경변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게 되었다.

넷째, 책임대국의 이미지로 국가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시 중국정부의 인민폐의 환율유지 정책은 세계경제 혹은 지역경제와 깊이 통합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정책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환율유지 정책결정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책임대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려는 동기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지만 환율인하로 인하여 중국 경제가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 인민폐의 평가절하 정책은 수입비용과 유가를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가계부담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고 중국 수출품의 50% 이상을 가공무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켜 국제시장에서의 중국상품의 경쟁력을 낮출 거라는 경제적 이유가 있었다.

제2절 장쩌민의 대외정책

1. 반패권주의와 다극화 외교

가. 반패권주의

중국의 반패권주의 원칙의 적용대상은 원래 미국과 소련이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이었고, 1960년대는 미국과 소련이 그 대상이었고, 1970년대에는 중·소간의 충돌로 소련에 그 중점이 있었고, 1980년대에는 대외개방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중심이 안보중심에서 경제실리위주로 바뀌면서 미국과 소련에 대한 반패권주의 원칙도 유연해졌다.⁶⁴⁾ 등샤오핑이 1989년 서방 7개국(G7) 정상회의도 패권주의와 강권주의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⁶⁵⁾ 있지만, 현재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반패권주의 원칙의 적용대상은 미국이라 할 수 있다.⁶⁶⁾ 장쩌민 대외정책의 방향이 제시된 15전 대회에서 제시된 ‘정치보고’에서는 현재의 국제환경이 다극화 되어가고 있으며, ‘패권주의’와 ‘강권정치’가 국제질서를 해치는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반패권주의의 ‘다극화외교’를 주장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20년간 대외정책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전개해 왔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1999년 5월에 유고의 코소보사태로 출격한 NATO군의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에 대한 폭격사건은 중국이 반패권주의 외교 원칙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장쩌민은 2000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방문했고, 2000년 10월에는 중국-아프리카 합작 논단(베이징 2000) 회의를 통해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강권주의와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외교관계를 강화하였다.

나. 다극화 외교

중국은 소련 붕괴의 원인을 서방측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소련 스스로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봉쇄와 견제가 소련붕괴에 영향을

64) 오용석, “중국대외정책의 원칙 및 목표의 지속과 변용”, 『중국연구』, 제19권, (2000), p.41.

65) 鄧小平, “堅持社會主義, 防止和平演變”, 『鄧小平文選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pp. 344-346.

66) 오용석, 전계서, p.42.

미친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구조의 경직성과 과도한 군사비 지출 등 내부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다.⁶⁷⁾ 현재의 국제질서는 과도기로서 향후, 미, 일, 중, 러, EU 등의 다극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는 중국체제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패권국가가 다극화 구조로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다극화 외교는 1996년 4월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이후 중국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세계의 질서가 특정 강대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97년 4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미·일안보공동선언에 대응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미·일의 견제에 러시아와 이해가 일치한 것으로 중·러 양국이 우호 관계를 다짐한 것은 냉전종식 이후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을 견제할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양국정상은 공동선언에서 “다극체제의 세계와 신국제질서의 형성”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소련 붕괴 후 미국의 국제사회 영향력이 급격히 증대되는 것을 겨냥한 것이며 강화된 미국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이 주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극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명은 또 “어떠한 국가도 헤게모니를 추구해서는 안되며, 국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힘에 근거하여 외교를 강행하거나 독점을 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있다.⁶⁸⁾ 중국은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는 냉전시대이나 있을 법한 것으로 현실의 국제 사회에서는 평화와 안정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논리이다. 세계질서는 다극화의 체제를 원하며, NATO의 동유럽 확대나 미일안보체제의 강화 등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국제질서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질서가 미국에 의해 이끌어질 경우 대만문제 등의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결국 다극화 외교는 중국이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일본의 패권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아시아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ARF(아세안 지역 포럼)와 ‘동북아 협력대화’ 등의 지역간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또한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는 강대국의 책임을 다한다는 責任大國論

67) 한광수, “장쩌민 시대 중미 관계의 변화와 전망”,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2권 제1호, (1999), p.36.

68) 공동성명 내용은 『조선일보』, 1997년 4월 25일자 참조

을 제기하면서 당시 중국의 국내사정상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이 있었음에도 끝내 평가절하하지 않음으로써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했다는 주변국의 평가는 중국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강화시켰다. 장쩌민은 2002년 독일방문 시 어떤 개별국가도 독자적으로 자신의 안보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워졌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비로소 전 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고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안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⁶⁹⁾ 또한 16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이 세계의 다양성을 수호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진하며 발전모델의 다양성을 선호한다고 선언했다.⁷⁰⁾ 이러한 인식하에 1993년에 한국과 국교수립, 인도네시아와 관계회복, 싱가포르 및 브루나이와 수교, 파키스탄 및 방글라데시와 우호협력관계 강화, 인도와 관계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이 다극화외교와 함께 중요시 하고 것이 다자주의이다. “1990년 중반 이전까지는 경제우선주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에 대한 거부감, 대만문제와 인권을 통한 외세의 내정간섭의 가능성 및 미일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양자동맹체제의 강화 등의 이유로 다자주의에 소극적이었다.”⁷¹⁾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자주의 외교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중국은 다자기구를 활용하여 자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했다. 아울러 다자주의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동맹에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 중국을 다자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였다. 특히, 미국의 팽창을 저지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은 정치적·군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 대외정책에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중국의 현대화 지향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매우 중시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에서 지역 소국과의 관계에서 양자주의는 중국이 기대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분쟁이 악화되었을 경우 지역국가들이 반중국연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었고, 다자주의로 접근하는 것이 고립당하고 포위당하는 위험성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⁷²⁾ 다양한 지역협력기

69) 江澤民, “共同創造一個和平繁榮的新世紀”, 『人民日報』, 2002년 4월 11일자.

70) 그는 “서로 다른 문명과 사회체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발전의 길을 걷는 국가들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江澤民, “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 『人民日報』 2002년 11월 18일자.

71) 류동원, “중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인식과 실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4호, (2004), p.128.

72) Goldstein, Avery, “The Diplomatic Face of China's Grand Strategy: A Rising Power's Emerging Choice”, *The China Quarterly*, Vol.168(2001), pp.842-843.

구에 참여하였는데 아세안⁷³⁾과 중앙아시아를 포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⁷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비동맹과 대외개방을 특징으로 하며,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존중, 공동발전 모색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중국이 주장하는 ‘신안전관’의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중국은 SCO를 통하여 미국의 헤게모니 강화와 중국에 대한 민주화 요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의도를 갖고 있으며 아세안 참여를 통해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아세안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였고, ‘중국위협론’을 ‘중국기회론’으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1996년에는 NATO나 미·일동맹을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낡은 안보체제라 비판하면서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안보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신안보관’을 주장했다.⁷⁵⁾ 신안보관은 한 국가의 안보가 그 이웃 국가 또한 안전을 느낄 때 증진된다는 상호호혜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신안보관’의 핵심은 호신, 호리, 평등, 합작이다. 각 국가간에는 주권의 상호존중과 영토의 보존, 상호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 및 기타 공인된 국제원칙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이고, 호리협력, 공존번영은 평화를 유지하는 경제적 보증이며, 평등을 토대로 한 대화와 협상은 분쟁을 해결하는 올바른 지름길임을 제시하였다. 결국 중국이 제기한 신안보관은 현대화라는 국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외교안보정책인 평화공존5원칙의 틀을 유지하면서 서구의 협력안보이론을 적절히 수용한 ‘중국특색의 협력안보’라 할 수 있다.⁷⁶⁾

73) 아세안은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을 회원국으로 출범하여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8년 캄보디아가 가입해 현재는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74)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지역협력조직이다. 처음에는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이 참여하는 ‘상하이5국’으로 출발했지만 2001년에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하여 상하이협력기구가 공식 설립되었다. 2004년에는 몽골이, 2005년에는 인도, 파키스탄, 이란이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4년 6월 17일자.

75) 徐堅 主編, 『國際環境與中國的戰略機遇期』, (北京: 人民出版社, 2004)

76) 류동원, "중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인식과 실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4호, (2004), p.130.

2 강대국 외교

가. 강대국 외교의 배경

중국은 오랫동안 대외적 문제들에 대해 소극적이고 반응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제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 자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만 관심을 한정시켰고, 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입장과 정책을 밝히기 보다는 강대국의 입장을 지켜본 후에 입장을 밝혀왔다.⁷⁷⁾

<표 1 > 기간별 년평균 GDP 성장률

기간	개혁개방이전 30년간	1978-2001년	1989년-2001	1997-2001년
성장률	6.1%	9.4%	9.3%	7.5%

출처 : 월간 아태지역연구 2002년 10월

그러나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경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이면서도 90년대 내내 거의 평균 9%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세계경제, 특히, 아시아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제대국으로 인식되었고, WTO가입과 동시에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는 G8 회의에 참가하게 되면서 강대국으로 중국의 지위는 국제적으로 공인 받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외부 세계의 인식이 제고되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과 불만을 토로하는 현상 타파적 국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신국제질서를 형성해 가는 강대국으로서 책임 있는 대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89년 천안문사태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서 초래된 심각한 체제위기에서 벗어나 중국이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회복하면서 장쩌민 체제는 등샤오핑 시대의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대외정책에서 점차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자세로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장쩌민 후기의 대외정책 기조는 90년대 이후 중국의 급속도의 경제발전 실

77) Samuel S Kim, "International Structures and Chinese Foreign Policy." Thomas W. Roninson and David L. Shambaugh(eds.), *Chinese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Oxford: Clarendon Press, 1994), pp.401-434.

현, 그리고 그런 발전의 산물로 확산되기 시작한 중국 사회의 자신감과 정체성 모색 노력을 반영하는 중화민족주의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미국경제가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성장은 국제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제고되었다.

강대국 외교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또 자신의 목표와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외교정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목표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이를 동원하고 활용할 능력을 지녀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강대국만이 이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은 강대국 외교로서의 속성을 띠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⁷⁸⁾ 그러나 중국의 강대국 외교는 대외적으로 팽창정책을 추구하려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첫째 이유는 미국의 존재이다. 중국에게 있어 미국은 경제발전에 있어 기술, 자본과 시장의 공급지이며, 대만통일에서 있어서도 미국이 힘겨운 걸림돌의 존재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정상화 없이는 중국의 앞길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⁷⁹⁾ 따라서 중국은 대미국과의 관계에서 팽창정책을 추구할 수 없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남아있으며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간주하고 견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추구에 반대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중국에 자본, 기술, 시장 등을 제공해서 중국 경제발전에 불가피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다른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정책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동아시아 국가들 또한 중국의 강대국 외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초-중반 남사군도와 대만해협에서의 무력행사는 주변국들에게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져왔고 동남아 국가들은 향후 미국과 연대하여 중국을 견제할 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 강대국 외교의 전개

중국의 강대국 외교의 핵심은 대미국 대외정책으로서 양국은 적대와 화해, 협력과 갈등의 이중구조를 보이며 불안정한 순환적 양상을 보여왔다. 미국은

78) 김재철, “중국의 강대국 대외정책”, 『국가전략』, 제11권 3호, (2005), pp.114-115.

79) 한광수, “장쩌민시대 중미관계의 변화와 전망”,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2권 제1호, (1999), p.38.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쟁당사자 관계였으며 이후 1969년까지는 군사대결의 적대적 관계속에서 교류가 단절되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관계⁸⁰⁾를 맺었고, 이후 1980년대 초까지 협조관계로 전환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1989년 6·4천안문 사건 시기까지는 경제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90년대 이후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 국내정치의 안정, 그리고 중·미관계의 개선 등으로 중국에 대한 국내·외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중국은 이미 대부분의 국가들부터 강대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때로는 ‘중국위협론’과 같이 중국을 경계하는 인식도 제기되었지만, 동시에 강대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중국에 대한 기대도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신안보’ 개념을 통해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역할을 제시하고자 했다. 신안보개념에 기초한 중국의 안보전략은 미·일 동맹강화에 대응하여 중·러협약과 같은 양자간 관계 강화와 다자안보협력에 참여확대를 통한 다극화를 추구해 나가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안보전략이었다. 확대된 경제력을 배경으로 장쩌민은 마오쩌둥 시기나 80년대 개혁·개방 초기의 등샤오핑⁸¹⁾ 시기에 비하여 중국 최고위급 지도자들의 방문외교와 정상회담이 수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실제 중국의 외교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장쩌민의 대외정책의 특징은 정상외교⁸²⁾를 통한 ‘강대국관계의 조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인치적 특성이 강한 그들의 독특한 정치체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정상외교가 지니는 역할과 의미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정상외교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⁸³⁾

첫째, 탈냉전기에 들어와 급속도로 성장한 경제력과⁸⁴⁾ 군사력, 동남아 지역에

80) 1972년 상해공동성명과 1979년 국교정상화가 있었다.

81) 마오쩌둥은 정상회담을 위해 모스크바를 두차례 방문했으며, 등샤오핑은 개혁개방 초기인 1970년 말 일본과 미국을 방문한 후 중국내에서 외국 정상을 맞이했다.

82) “강대국 외교는 전문외교관이 아닌 국가원수, 수상 또는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자 등이 직접 외교교섭에 나섬으로써 국가간 현안을 최고위급 수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려는 외교수단이다. 정상외교에 대해서는 예산과 에너지 낭비, 전문성 결여 등을 들어 우려의 소리도 없지 않지만 교통·통신의 발달, 정부의 역할 증대 등 새로운 요인과 함께 국가관계를 보다 신속하고 권위있게 정립해 간다는 취지에서 꾸준히 각광을 받고 있다.” (정상외교의 개념과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Plischke Elmer, *Diplomat in Chief: The President at the Summit*, (Westport: Greenwood Press, 1986), pp.14-20.

83) 박병광, “중국의 정상외교와 강대국관계조정- 강택민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집 2호, (2003), pp.371-372 참조

84) 1980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9.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2005년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4위, 무역규모는 세계 3위인 경제대국이 되었다.

서의 영유권 분쟁, 1995년에 진행된 핵실험 강행 등 때문에 국제적으로 확산된 ‘중국위협론’의 불식시키려는 목표로 갖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1997년 가을 새롭게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발표했고, 유럽에서는 나토의 동방확대에 관한 문제가 관심사항이 되는 등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중국위협론’이 ‘중국포위망’으로 발전될 거라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국인 러시아와 관계개선에 노력했으며, 아울러 미국에 대해서도 갈등과 대립보다는 협력적 우호관계를 지속하려는 노력을 했다.

둘째, 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등샤오핑의 ‘최소간섭주의’에서 벗어나 ‘유소작위’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국제사회에서의 실제적 역할을 증대하고 결과적으로 국제체제에 위치하는 하나의 극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하는 공세적 목표가 들어있다. 중국은 과거의 수세적이고 경직된 외교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중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전방위 외교를 펼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도는 특히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전개했다.

셋째, 중국의 정상외교는 90년대 중반 중국 국내정치상황과 관련하여 장쩌민의 국내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등샤오핑은 권력과 권위를 가지는 지도자였지만 장쩌민은 상해시 서기로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인물로 권력기반이 매우 취약했다. 장쩌민은 정상외교를 통하여 자신의 외교적 능력을 국민에게 보이면서 정치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장쩌민은 중국의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클린턴과 회담함으로써 중국 인민들에게 국제적 외교력을 인정받는 지도자의 모습을 각인시켰다.

넷째, 중국의 대외정책의 원칙인 통일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중국은 정상외교를 통해 대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였고, 국제적으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인받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정상외교의 핵심주제 가운데 하나로 반드시 대만문제를 다루어 왔으며 미국, 러시아, 일본으로부터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섯째, 중국은 탈냉전기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에 안정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제무역협력이 필요했고, 미국과 사사건건 국제무대에서 갈등을 가져오면서도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지속되었다. 중국은 1999년 11월 미국과 WTO가입협상을 타결하고

2001년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되었다. 국제질서의 핵심축인 미국과의 관계개선 없이는 중국경제발전의 견인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였다. 중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술, 자본, 시장이 필요했고 대립과 갈등보다는 협력에 비중을 두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했다. 또한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를 보면서 미국과의 경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1989년 이후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대소전략적 유대관계가 소멸된 탈냉전기 중미관계는 이전의 군사적 대결양상에서 벗어나 군사, 안보, 경제, 인권, 대만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확대되었고, 갈등과 협력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중미관계의 변화는 주로 미국의 대중국정책에 의해 결정되어져 왔다.⁸⁵⁾ 미국의 입장에서도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중요한 강대국으로 성장하여 지역질서의 안정과, 국제문제의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양국간의 무역규모의 확대로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중정책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을 두고 미국은 대중국 무기금수, 군고위인사 교류동결, 정부 고위인사간 교류동결 등 대중국제재 조치를 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것은 억제와 접촉이라는 대중국정책이다. 양국은 대만문제, 인권문제, 서장문제, 중국 WTO의 가입문제, 지역안보문제 등을 이슈로 하여 억압과 접촉, 대항과 타협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1990년 초반 부시행정부는 중국의 지나친 고립화 방지를 위해 점진적인 관계회복 정책을 추진했으면 중국은 북경일대의 계엄령을 해제하고 천안문사태의 관련자들을 석방하는 등 미국에 대해 화해의 대답을 하였다. 1993년 1월 미국의 클린턴 정부의 등장으로 양국관계는 통상마찰, 인권문제, 미국의 대만에 대한 F-16판매 문제 등으로 다시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 클린턴은 민주주의 확산을 미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중국의 인권박해에 대해 MFN(최혜국대우) 연장 조치 철회, 슈퍼 301조 발동 등과 같은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다. 1995년

85) 냉전이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크게 '포용론'과 '봉쇄론'으로 대별되는데, '포용론'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입장이고 '봉쇄론'은 중국위협론에 근거하여 고립과 제재의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70년대 닉슨대통령 이후 80년대 레이건, 부시정부를 거쳐 클린턴정부까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포괄적 포용'(Comprehensive Engagement)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포용론'과 '봉쇄론'을 적절하게 타협한 이론으로서 사안에 따라 견제와 봉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류동원, "강택민시대 중국외교의 난제",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1집 1호, (2001), p.147)

이등회 대만 총통의 미국방문 허용, 1996년 3월 인민해방군의 대만해협에서 미사일 발사훈련 등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갈등의 양국관계가 협력의 관계로 전되는 전기가 마련되는데 중국 '15전 대회' 결과 장쩌민의 권력이 강화되었고, 중국사회에 만연되었던 민족주의와 극단적 반미주의가 해소되었으며 국내적으로 대미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권력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음으로써 중·소분쟁 이후 중국 외교정책의 핵심난제였던 북방 안보위협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대미관계를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끌어 올릴 수 있었다. 미국에서도 중국에 대해 '포괄적 포용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간의 상호방문을 포함한 대화와 접촉을 강화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만 강경한 수단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적극적인 중국정책의 배경은 주요 국제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매우 크게 인식했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당시 미국은 중국의 2대 교역상대국이고 중국은 미국의 4대 교역상대국으로서 경제적 의존성이 매우 높았다. 급기야 1997년 10월 장쩌민 주석이 국가원수로서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⁸⁶⁾을 통하여 양국의 관계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1998년 클린턴은 중국을 답방하여 인권문제를 제외한 많은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해 냈고 양국은 '건설적 전략동반자 관계'⁸⁷⁾를 맺었다. 중국은 클린턴 방중에서 두가지의 성과를 얻어냈다.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해준 것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칭찬⁸⁸⁾을 받아냈고, 3불정책(대만독립반대, 一國兩制, 대만의 UN가입 반대) 합의하고 전략핵무기 상호 불겨냥에 합의함으로써 중·미 양국은 더 이상 적대적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였다.⁸⁹⁾ 클린턴의 삼불정책의 지지는 장쩌민으로 하여금

86) 정상회담에서 지구적인 안보문제, 동아시아안보, 무역장벽의 해소, 핵무기 통제, 마약과 조직범죄의 퇴치, 기후변화 방지 등 6가지의 주요사안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87) '건설적 전략동반자 관계'란 중국과 미국이 일치되는 점은 추구하고, 의견이 다른 점은 잠시 보류하며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을 의미한다. 양국이 전략적으로 중동·서남아·한반도에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이 상호간에 핵무기를 조준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적대관계를 청산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러시아와 맺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하고는 다소 의미가 다르다. 러시아와 맺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현재적 의미라면 미국과 맺은 건설적 전략동반자 관계는 미래지향적 의미이다.(조현태, "강택민의 방미와 중국의 대외정책," 북한, 1997년 12월호), p.127)

88) 『South China Morning Post』, June, 28, 1998

89) 『South China Morning Post』, June, 30, 1998

중국 내 보수세력 및 그 지지자들에 대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99년 5월에 발생한 미 공군기의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폭격 사건, 1999년 초부터 미국이 재미 화교과학자의 핵기술 절취의혹사건, 중국내 인권상황 문제제기 및 미·일간 미사일방어체계(NMD) 구축 합의 등을 통해 긴장이 지속되었고 2001년 부시(조지W) 행정부 출범이후 중·미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부시(조지W)는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로 평가하면서 대중국 정책을 ‘포용론’ 보다는 ‘봉쇄론’⁹⁰⁾에 중심을 두었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미사일, 잠수함, 구축함 등을 구입하는 등 군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대만을 겨냥한 것이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 시 이 지역에 미국의 개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았다.

부시(조지W)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국방방위(MD)체제와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 구축에 각별한 노력을 하였다. 대만문제에 대해서 클린턴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인정했는데 부시(조지W)는 중국이 무력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시대통령이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당하면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할 것이고 ‘대만안보강화법’을 지지하며 대만을 포함하는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 구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1년 10월 상하이에서 열린 APEC정상회담에서 부시와 장쩌민은 새로운 관계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9·11테러 이후 대테러전에 협력함으로써 동반자관계의 회복을 이루었다.⁹¹⁾ 장쩌민은 2002년 10월 재차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와 회담했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원활한 세대교체를 위해서는 미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하는 중국지도부의 인식을 정상회담을 통해 차세대의 중·미 관계에 대한 초석을 다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신안보’ 개념을 재차 강조하면서 ‘전방위적 우호협력 강대국 전략’을 구사하였다. 기본구상은 냉전사고를 탈피하고, 신뢰구축이 안보의 초석이며, 경제와 통상협상으로 안보를 제고하여 역으로 안보의 협력을 통

90) 오늘날 중국인들은 미국의 신관 봉쇄정책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비롯한 이중적 행위와 함께 미·일 방위협력지침 등 중국을 겨냥한 대일본 안보유대강화,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 티벳자치를 겨냥한 지지, 그리고 중국의 국제활동 견제 등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새로운 봉쇄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91) 9·11테러 이후 미국은 대중·대러 정책에 변화를 보였다. 중국이 전략적 경쟁자가 아닌 대테러전의 협력자로 바뀌었다. 테러 이후 미국의 새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는 2002년 9월 20일 발간된 부시의 ‘신안보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를 더 이상 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

해서 경제협력을 증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테러와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지역집단안보체제 수립이 필요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국은 대테러전에 있어 미국의 지지와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온건한 자세를 견지했다. 2001년 9월에 중앙아시아에 미군 주둔 장기화에 별다른 반발을 보이지 않았으며,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완화했다. 둘째, 국내안보에 위협이 되는 신장 위구르의 이슬람세력을 유엔 테러리스트 목록에 추가하게끔 미국의 동의를 얻어냈다. 셋째,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파트너의 이미지를 심는데 노력했다.

탈냉전기 중·미관계는 정치·안보분야의 이슈에 대해서는 대립하면서도 경제적 협력에 대한 노력은 지속하였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풍부한 시장, 기술, 자본을 가져올 수 없게 되면 중국의 현대화 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고, 중국 올림픽 개최희망과 연간 8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흑자, WTO가입을 위한 미국의 협조필요 때문에 끝없는 대립을 원하지는 않았다.

미국측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표2>에 의하면 양국간 교역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기에 걸쳐 미국의 무역흑자 기조가 나타났으나 1983년 이후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중국의 흑자기조가 확고해졌으며 1986년 이후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미국은 매년 1000억 달러를 넘고 있는 대중국 상품교역량 규모를 볼 때 부시행정부 역시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상과 같이 중국은 강대국 외교에 있어 ‘정·경분리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군사, 인권, 주권, 대만문제에 있어서는 양국간의 대립이 있었지만 양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경제분야에서는 철저히 협력을 해왔다.

이밖에 ‘강대국외교’의 예로는 1997년 엘친 대통령의 중국방문과 정상회담(11.10), 이봉 총리의 일본방문과 정상회담(11.11)을 성사시켰다. 또한 1998년에는 블레어 영국총리와 조스팽 프랑스 총리의 중국방문(10월)과, 장쩌민의 러시아 및 일본방문(11월) 등에 따른 중국과 이들 강대국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⁹²⁾를 수립하게 된다.

92) 동반자외교는 주요국가들과 동반자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동반자관계는 역사적 요인, 친소관계, 달성목표에 따라 전략적 관계와 전면적 협력관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전략동반자관계는 장기성과 전면성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특별한 이권이 없는 특수이익이 존재하는 국가와의 관계이다. 현재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는 의미는 세계 전략적 시각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표 2> 사회주의 시장경제 출범 이전 중국의 미국에 대한
교역추이(1978-1992)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총교역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78	1,146	324	822	-498
1979	2,317	593	1,724	-1131
1980	4,915	1,161	3,754	-2593
1981	5,664	2,062	3,602	-1502
1982	5,414	2,502	2,912	-410
1983	4,649	2,476	2,173	303
1984	6,069	3,065	3,004	61
1985	7,717	3,862	3,856	6
1986	7,877	4,771	3,106	1,665
1987	9,791	6,293	3,497	2,796
1988	13,532	8,511	5,021	3,490
1989	17,745	11,990	5,755	6,235
1990	20,031	15,224	4,807	10,417
1991	25,100	18,900	6,200	12,700
1992	33,198	25,729	7,469	18,259

출처: U.S. Dept. of Commerce, 1984, 1992 US Foreign Trade Highlights,
Washington: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1989년 고르바초프의 북경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소련은 국교를 정상화했다.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 고르바초프의 퇴진, 반공주의 노선을 선언한 옐친의 등장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다시 이념과 체제의 문제로 소원해지기도 했으나 1992년 12월 옐친대통령의 중국방문과 1994년 장쩌민의 러시아 방문,⁹³⁾ 1996년 옐친의 중국답방을 통해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교통, 농업, 금융, 군사기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⁹⁴⁾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걸프전쟁에서 코소보 사태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해야 한다는 전략적 필요성 등이 대두되면서 양국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갔

설정하는 것으로 현재 이에 적합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뿐이다.(이명, 2001/10/30)

93) 러시아 탄생이후 중국지도자로서 최초 방문이었다.

94) 『人民日报』, 1996년 4월 27일자

다. 1997년 4월과 1999년 8월에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다국적 국제질서의 확립과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여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에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⁹⁵⁾

중국과 러시아가 급속히 접근하게 된 배경은 중국으로서 인권문제, 대만문제, 티베트문제, 중국위협론 유포 등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나오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 쌓였고 러시아의 입장에서 미국이 동유럽국가들을 받아들여 NATO를 확장하고 있는데 대해 경계와 불만의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구소련 해체 후 약체화된 러시아가 냉전이후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다.⁹⁶⁾

95) 『동아일보』, 1999년 8월 26일자

96) 조현태, “강택민의 방미와 중국의 대외정책”, 북한, (1997년 12월호), p.125.

제5장 후진타오의 대외정책

제1절 후진타오의 대외정책결정 요인

1. 국내적 요인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 제1중전회에서 장쩌민을 대신해서 신임 총서기로 선출된 후진타오⁹⁷⁾는 또 2003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장쩌민을 대신해 신임 국가주석으로 선출되어 당정에 걸쳐 최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2004년 9월 당 제16기 4중전회에서는 또 다시 장쩌민을 대신해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⁹⁸⁾되어 당정군의 최고 영도자가 됨으로써 그를 핵심으로 한 제4세대 지도체제를 형성했다. 그러나 당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중에서 5명이 장쩌민 계통의 인사였고, 2003년 3월에 새로 구성된 원자바오 중심의 신내각 소속4명의 부총리 중에서도 3명이 장쩌민 계열이라고 분류될 만큼 장쩌민 시대의 후광이 상당히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의 폭과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상당한 정도의 권력이동이 있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제3세대를 중심으로 한 장쩌민 시대는 실질적으로 퇴장하고 있으며 제4세대를 대표하는 후진타오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제10기 전인대 대표단의 약70%가 신인으로 구성되었고 25명의 당 중앙정치국원 중에서 16명이 새로 선임되었고,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중에서 후진타오를 제외한 8명이 새로 선출된 신인으로 채워졌고, 8명의 서기국 서기중 7명이 신인이었다.

97) 후진타오는 ①신세대 지도자중 대표주자로서 정치제도화의 상징이고 ②중국의 내륙지방 출신으로서 ‘상해방’을 중심으로 한 연안지역 출신과 대비되고 ③특정 계파가 없고 중국사회의 보수·진보세력을 포함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강점으로 보고 있다.

98) 중앙군사위 주석이 2004년도에 후진타오에게 이관됨으로써 후진타오는 당, 정, 군의 권력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중앙군사위 주석자리를 승계하기 전, 2002년 4월 21일 후진타오는 사스발병 상태의 축소와 은폐를 시인하고 군 의료진을 동원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군 통수권자였던 장쩌민은 일주일도 지난 후에야 군 의료진을 투입하는 결정을 하달해 2002-2004년의 이원적 지배체제의 단점이 그대로 노출 되었다. 중국의 헌법구조상 전국 무장력의 통수권이 국가주석이 아닌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에게 부여되어있기 때문에 국가중앙군사위는 또 하나의 합법적 권력중심으로 이루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의 사회혼란이나 금융대란, 대만해협에서의 충돌 등 위기사태가 발생 시 핵심적 권력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다. (박두복, “중국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결과분석: 정치개혁과 대외정책 전망을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3), pp.3-4

행정부 쪽에서도 국무원 4명의 부총리 중 4명 전원, 그리고 5명의 국무위원 전원이 신임이었으며 10기 전인대에서 새롭게 구성된 국무원의 28명 국무원 부장(장관) 중에서 18명이 신임이었다.⁹⁹⁾ 후진타오는 기존 등샤오핑 이론에 바탕을 두고 중국의 발전을 주도한 장쩌민 체제의 발전론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색깔을 내야하는 난제에 부딪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후진타오 체제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현 지도부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에 힘써왔으며 이러한 작업은 정치, 경제, 외교 등 다방면에서 노정되고 있다. 결국 후진타오는 대내적으로는 개혁개방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기존 중국발전의 성과를 극대화하면서 그동안 발전주의의 이면에 가려있던 각종 부작용을 치유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의 조류속에서 중국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에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다.

후진타오 시대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정치체제를 평화발전의 시대로 인식하고 미국주도의 단일패권체제를 탈피하려는 다극화 외교를 지향했다. 후진타오 시대에도 장쩌민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국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 국제체제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1989년 소련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해체되었고, 21세기 초까지 세계질서의 대전환 시기로 중국지도부는 인식하고 있다. 즉, 국제정치체제를 평화발전의 시대로 규정짓고 미국주도의 단일패권체제를 탈피하려는 다극화외교를 지향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EU등 기존 강대국중심의 외교활동을 강화했고, 국제기구를 통한 균형적 외교의 사고를 중심으로 다자간 외교를 진행해 했다. 후진타오가 국가주석으로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프랑스에서 열리는 G8회의 참석 등 적극적인 순방외교를 실시한 것은 국제질서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선진국간 불균형문제나 세계경제 문제 같은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추된 중국의 국제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세적인 외교로 전환시켜 왔다. 2001년 가입한 WTO 협약에 따라 중국시장을 세계시장에 개방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중국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간 소득격차, 농촌과 도시간의 불균형 시정, 미국의 환율절상 압력 등의 문제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증대 속에 중국경제의 지속적 발전, 그리고 경제발전의 성과가 주변국들에게 중국위협론으로 인식되

99)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 (서울: 폴리테이아, 2009), p.234-236.

지 않도록 ‘책임감 있고 평화적이며 위협적이지 않은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치를 갖겠다’는 평화발전을 중심으로 EU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ARF 및 APEC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생겼다.

둘째, 정책결정과정에 전문가집단의 영향이 커졌다.

지구적인 차원의 경제, 안보 및 문화 등 수많은 영역의 국제레짐과 다자간 기구에 중국의 참여는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관료기구와 전문가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중요한 외교정책의 결정권한은 소수의 핵심지도자 그룹에게 여전히 남아 있지만, 투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적 국제적인 요인들이 증가하였다.¹⁰⁰⁾ 과거에는 최고지도자의 개인적인 사상과 인식이 정책결정에 중점적으로 반영되었다면 4세대 지부부의 정책결정은 심의과정이 중시되고 爲民僞本의 통치이념하에 집단지도체제와 전문가와 관료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후진타오에 들어와서도 당이 국가의 우위에 서는 구조는 여전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상→하의 흐름과 하→상으로의 과정이 존재하는데 1990년대까지는 상→하의 흐름이 주를 이루어 이미 정해진 답안에 따라 정치지도자의 논리를 강화하여 주거나 부가적인 제안을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후진타오 시대에 들어와 하→상의 흐름이 중요시 되었다. 중국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각 부처 간, 연구단위 간, 연구자간 협력이나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는 것인데, 소조의 모임이나 싱크탱크들이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통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중국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화와 다양화의 추세속에서 학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왔다. 과거에는 싱크탱크들이 자신들이 속해있는 조직의 관료적 위계질서에 따라 정책제안이 제한을 받았으나 지금은 다원화된 정책결정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기회가 늘어났다. 또한 장기간의 현대화 과정을 통해서 중국 특색의 ‘시민사회’와 ‘지방자치’가 형성·발달되었고, 시민의식의 향상, 정보와 미디어의 발달, 건설적 NGO의 성장 등을 통하여 중국외교의 행위자가 다원화되고 있으며 국내정치와 외교의 상호연계가 심화되었다.

셋째, 21세 들어 중국은 ‘연성권력’의 강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중 대

100) 차창훈, “21세기 중국의 외교정책”, 『한국정치외교사 논총』, 제29집 제1호, (2007), p.164.

표적인 것이 ‘포럼외교’의 강화이고 대표적인 조직이 중공 중앙당교가 주관하는 연구기관인 ‘개혁개방논단’이다. 이 조직은 1994년에 설립되었으나 후진타오 등장 이후 후진타오의 최측근인 정비젠이 2002년 이사장으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였다. 개혁개방논단은 후진타오의 대외정책 브레인인 정비젠, 왕지쓰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후진타오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인물들이며 국제전략적 시각에서 국제 정치·경제 발전 동향에 관해 당 지도부에 주요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또한 후진타오 시대에 들어와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대외정책 결정에 참여하다 보니 합의도출이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장쩌민 시대에 외사영도소조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했으나 후진타오 시대에 들어와 외사영도소조의 역할이 부각되게 되었다.

넷째, 극도로 심화된 소득불균등의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등샤오핑과 장쩌민 시대는 경제발전 제일주의¹⁰¹⁾ 노선에 따라 대담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경제발전 제일주의에 내포된 성장 일변도와 불균등 발전 전략은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더불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그리고 계층간 분열과 긴장, 갈등을 산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서간의 발전격차, 도·농간의 수입격차, 실업과 범죄의 증가 등의 문제를 후진타오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의존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간 주민간의 소득격차는 3.3배, 국유기업 고위 관리자와 사회 평균 임금 차이는 128배에 이르고 있으며, 중국의 지니계수는 0.47정도로 추정되고 있다.¹⁰²⁾ 후진타오는 등샤오핑과 장쩌민 시대의 긍정적 유산인 경제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국내적으로 조화사회를 표방하면서 압축성장이 낳은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역적·계층적 분야별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회영역에서는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과학적 발전관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적 발전관’이란

101) 중국은 개혁개방 20여년간 등샤오핑이 1980년대초에 제시했다는 이른바 3단계 발전전략에 입각,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비약적 발전을 했다. 溫飽와 小康의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제 전면적 소강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81년부터 90년까지 국민소득을 두배로 증가시켜 최소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溫飽 수준에 도달하고, 2000년까지 다시 1990년의 총국민소득을 두배로 증가하여 일상생활의 걱정이 없는 小康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했는데 장쩌민은 2000년에 중국이 小康단계에 도달했다고 선언했다.

102)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420261.html>. 지니계수가 보통 0.4가 넘으면 불평등이 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유엔개발계획보고서가 가장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밝힌 홍콩(0.434)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도시와 농촌, 지역간, 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 및 환경친화적 발전, 그리고 대외 개방과 국내 발전의 균형 등 5대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¹⁰³⁾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 연간 8만건에 달하는 대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있고 서민들의 주택 값 상승으로 인한 주택 부족현상 및 소비자물가 상승,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의료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공 의료시스템의 미비, 농촌의 공핍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로 유입된 농민공¹⁰⁴⁾의 불만을 해소해 줄 창구의 부재, 관료들의 부정부패에서 오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기초교육의 붕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서민들의 아픔들이 존재하고 있다.¹⁰⁵⁾

다섯째, 공업화 일변도의 경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8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의 경제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해 왔고,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대부분의 투자를 외국자본에 의존해 오고 있으며, 중국 관리들도 외국 자본을 많이 유치하는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자본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공업화 성장방식은 초기에는 많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으나 장기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공업화 성장방식을 대체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권위주의적인 권력구조의 개선으로 집단지도체제에 의한 협의의 의사 결정과정이 될 것이며 기층민주주의의 요구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권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 구태의연한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집단지도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이 1인이 지배하는 체제를 벗어났다는 평가도 있다. 3세대에서 제4세대로의 권력승계과정¹⁰⁶⁾은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권력승계과정이 비교적 평화적 안정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혁기에 들어 중국 정치가 점차 제도화 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¹⁰⁷⁾ 후진타오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더 이상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권위체제가 수립

103) 『新华社』, 2004년 3월 14일자, “第十屆 全國人民代表大會第二次會議 政府工作報告”

104) 현재 약 1억명에서 1억 5천명에 이른다고 함

105) 『동아일보』, 2007년 10월 16일자

106) 특히, 후진타오는 장쩌민 계열을 척결하기 위해 부정부패 카드를 사용하면서 상하이시의 천량위 서기를 해임하였다. 중국의 부정부패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부패공간의 확대와 관료들의 행정권한의 독점과 국유재산의 관리, 불완전한 시장경쟁 체제, 인맥을 중시하는 사회,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비용-효용이론의 측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금전적 비용이 처벌비용 보다 크기 때문에 부패의 액수와 건수가 늘고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107) 조영남, “중국 후진타오-원자바오체제의 등장과 정치개혁: 현황과 전망”, 『현대중국연구』, 제6집 1호, (2004), p.232.

되기 어렵게 되었다. 후진타오는 17차 전국대표대회까지도 친정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과거 수렴청정을 해오고 있는 장쩌민 또한 절대 권력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기 보다는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등샤오핑 집권 이후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분산 시스템에 따라 중국의 새로운 지도체제는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이 일정한 권력과 역할을 분담하는 상호 분업적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원이 국무원 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정치협상회의 주석, 당 기율검사위원회 주석 등의 지도적 직책을 겸임하는 분업적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으로 권력구조가 변화되었다. 이러한 집단지도체제에 의한 권력분산과 이에 따른 협의의 정치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다.¹⁰⁸⁾

2003년 8월 3일 中央黨校 기관지인 學習時報에 薄貴利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한 문장은 중앙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정치체제는 과거 계획경제 시대의 산물로 현재에는 맞지 않은 체제이므로 과감한 정치개혁을 추진해 합리적이고 완전한 분권형 권력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는 주간지 리아오왕(瞭望)은 민주개혁을 함으로써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당을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은 민주개혁을 추진하고 자본가를 영입하는 한편 각지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¹⁰⁹⁾ 특히 ‘집권 공산당의 최대의 적은 부패’라고 지적하고 ‘아래로부터의 감시체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공산당 기관지인 치우스(求是)도 ‘최근 일부 지도자들이 국민대중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당 간부들의 부패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¹¹⁰⁾ 권력구조적인 면에서 언급해야 할 부분이 공산당의 현대적 변용이다. 그동안 중국은 개혁·개방의 초점은 경제영역이었고 여전히 정치영역에서는 공산당의 영도와 지도로 운영되는 정치구조를 공고히 해왔다. 중국은 以黨建國 以黨治國의 이념으로 공산당 독재가 당연시되고 있는 국가로서 향후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이데올로기의 수립과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화를 공산당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다. 특히 후진타오는 마오쩌둥이나 등샤오핑, 장쩌민에 비해 정치적 권위가 부족

108)조영남, “중국 제4세대 지도자의 등장과 정책변화,” (미래전략연구원 논단, 2004년 10월 7일), p. 3.

109)政改指向权力过分集中 党内民主是重要途径 (<http://politics.people.com.cn/GB/1026/6672630.html>)

110)강준영, “중국의 정치 개혁”, 헤럴드경제, 2003년 8월 19일자.

하고 권력체제 또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당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입과 당과 의회의 균형관계 수립 등의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야 한다.

중국이 추구하는 개혁개방정책과 4개 현대화(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는 바로 중국 사회의 삶의 질의 개선과 인민들의 소득을 개선해 주는 정책으로 인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정치적인 욕구를 하게 됨은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며 중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권력주조의 개혁과 기층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의 4세대 지도자의 시기에 20여 년간 진행된 ‘중국특색의 시장경제체제’의 지속과 공산당의 인치와 관료주의적 관성 때문에 기층민주주의를 확대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4세대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기술관료로서의 한계와 정치적 성장배경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한 민주적 방식에 익숙하지 못하며, 4세대 지도자의 대다수가 도시가 아닌 곳에서 사회주의적 소양을 쌓으며 정치적 성장을 했기 때문에 민중주의적 의식은 강하나 민주주의적 의식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¹¹¹⁾

일곱째, 중화민족주의가 외교정책 결정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세기 말 서구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민족주의는 서구의 간섭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하고 중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어적·대응적 성격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나 1990년 이후 중국은 자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의 자부심 내지는 위대함을 재확인하려는 시도에서 적극적·공세적으로 민족주의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¹¹²⁾ 중국인들 사이에 굴욕의 근대 역사를 극복하려는 의식이 강화되고,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경제력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에 중국 정치지도자들이 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국의 새로운 민족주의는 주변국과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중국의 평화발전적 외교정책을 수립하는데 제한을 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민족주의에 의한 주변국가와의 갈등구조는 아직까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대외적 행태를 위협으로 규정하거나 중국의 평화지향적 외교전략을 무효화시키는 수준에 이르지지는 못했지만 후진타오 체제가 제시하고 있는 평화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그

111) 전가람, “후진타오체제의 정치·경제·외교적 특징”, 『동서연구』, 제18권 제2호, (2006), p.66-67.

112) Peter Hays Gries, *China's New Nationalism: Pride, Politics, and Diplomacy*, (Baker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pp.1-33.

동안 개혁개방 및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약화된 사회주의 이념의 공백을 중화주의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지도부가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16대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노동자, 농민 계급은 물론 전 중화민족을 대하는 정당임을 당장에 삽입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강화된 민족주의가 공산당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1919년 5·4운동 등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듯이 민족주의 운동은 반외세에서 반정부로 바뀔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 그래서 공산당은 주민의 민족주의적 요구와 운동이 일정선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¹¹³⁾

나. 국제적 요인

장쩌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 실현을 주창하며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력증강을 추구한 것에 비해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를 중심으로 한 중국 신지도부는 장쩌민 시대 경제발전으로 야기된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평화굴기, 평화발전의 대외정책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증강된 종합국력을 배경으로 적극적인 외교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지도부는 국제정세 인식과 관련하여 현재는 평화와 발전의 시대이며 강대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중국의 경제성장에 좋은 국제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¹¹⁴⁾ 이는 중국은 평화적 부상을 추구하고,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 및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내용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 3대 핵보유국이며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세계 경제규모 4위의 세계 강국으로 발전함에 따라 외교정책의 기초가 조심스럽게 변하게 되었다. 즉, 과거의 외교정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요구에 대해 소극적, 방어적 자세를 견지했으나 후진타오시대에 들어서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 속에 적극적 공격적 자세로 변하고 있다.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지속시키기 위해 1990년 중반부터 대강대국·주변국·

113) 조영남,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 (서울: (주)나남, 2008), p.331.

114) 이 주장은 공산당 中央黨校 부교장인 정비젠(鄭必堅)이 2004년 4월 중국이 주관하는 아시아 보아오포럼(博鳌論壇)에서 중국평화굴기의 새로운 길과 아시아의 미래라는 강연에서 최초로 주장한 것이다.

다자외교관계를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미국, 러시아 등 기존 강대국중심의 외교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거의 모든 국가와의 새로운 쌍무관계 수립 내지는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자간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국가와의 외교관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3년 12월 10일 미국 하버드대학교 강연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12월 26일 마오쩌둥 탄생 110주년 기념대회에서 후진타오 총서기가 이를 인용함으로써 국내외 주목을 받았으나 2004년 4월부터 중국에서는 ‘평화적흥기론’ 대신 ‘평화발전론’이 주장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부상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기존 강대국과 주변국을 자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평화적 흥기를 주장할 경우 대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력사용도 불가하겠다는 기존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¹¹⁵⁾ 문제는 상당수의 세계 강대국과 주변국들은 중국의 주장하는 평화굴기, 평화발전은 바람직한 국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안 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상하이협력기구나 아세안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국가는 중국의 이런 주장이 자신의 이익 증진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존스톤 같은 학자는 중국의 전략문화가 폭력지향적이며, 안보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접근법은 국제정치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실주의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는 유가 중심의 중국 전략문화는 외교적, 경제적 동기 또는 자기개발을 통한 상대방의 제압을 전제로 평화지향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다분히 자국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형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힘에 의한 안보위협을 제거를 중심으로 방어적인 전략보다는 공격적인 전략을 선호한다고 한다.¹¹⁶⁾

둘째, 중국위협론을 불식하고 화평발전의 대외정책에 대한 주변국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주변국외교를 강화하였다.¹¹⁷⁾ 중국은 신장된 국력과 높아진 국제적 지위를 이용해 한편으로는 이전처럼 국익증진에 매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지도적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구축해야만 한다. 이러한 정책을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미일의 시도를 저지하면서 동시

115) Robert L. Suettinger, "The Rise and Descent of 'Peaceful Rise'", *China Leadership Monitor* 12 (2004), pp.1~10

116)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117) 조영남, 전계서, p.263.

에 이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일이며,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는 아시아주변국을 안심시키고 이들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미·일의 견제에 맞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후진타오체제에 들어와서는 주변국에 대한 중국외교정책의 결실들이 맺어지는 시기였다. 2004년 10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4300km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정하였다.¹¹⁸⁾ 또한 2005도에는 인도와의 국경선 협상에서 평화와 안정유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티베지역의 시킴(錫金/Sikkim)지역을 인도 영토로 인정함으로써 양국사이의 갈등이 완화되었다.¹¹⁹⁾ 또한 남사열도의 해양분쟁도 1980년대 등샤오핑이 주장했던 “주권분쟁은 미루어 두고 공동개발한다”는 원칙을 주변국에 제시했지만 주변국들은 중국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중국에 대항하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아세안(ASEAN)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했으며 이를 중국이 받아들였다. 2002년에는 아세안 국가들과 협상과 담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남해각방행위선언(南海各方行爲宣言)을 체결했다.¹²⁰⁾ 후진타오는 기존의 미국, 러시아, EU, 일본, ASEAN과의 관계강화는 물론 이제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앙아시아, 중동, 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대외관계의 축과 내용을 다각화, 다양화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미국중심의 세계질서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다극화 추진을 강조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상승과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위협이나 군사력이 아닌 설득이나 매력을 통해 획득된 영향력을 의미하는 연성권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2004년 저서에서 나이는 중국은 소프트 파워가 없다고 규정했지만¹²¹⁾ 2005년에 입장을 바꿔 중국의 연성권력이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그 근거로 베이징 컨센서스가 국제적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¹²²⁾ 베이징 컨센서스란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의 관계에 대한 중국의 접근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와 권위주의 정부의 결합을 특징으로 한다. 중국은 국제사회에 편입하여 국제체제에 순응

118)胡锦涛与普京会谈中俄边界线走向全部确定(http://www.china.com.cn/zhuanti2005/txt/2004-10/14/content_5680145.htm)

119)锡金 (<http://baike.baidu.com/view/19360.htm>)

120)南海各方行为宣言(<http://baike.baidu.com/view/1780154.htm>)

121) Nye Joseph, “Soft Power :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April 13, 2004

122) Nye Joseph , “The Rise of China's Soft power”, *Wall Street Journal Asia*, (December 29, 2005)

하는 국가임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중국은 선량한 세계시민으로서 국제연합을 지지하고 환경, 빈곤, 마약, 난민, 테러 등 세계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위협이 아니고 기회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제2절 후진타오의 대외정책

1. 「韜光養晦」와 실리외교의 탈피

후진타오 체제는 국내정책에서 서민 지향적이고 실무적 정책성향을 들어내 보이고 있고, 동시에 대외정책에서도 기존의 소극적인 도광양晦(韜光養晦) 외교에서 탈피하여 부강한 중국의 등장에 부응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강대국 외교로서 방향을 전환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韜光養晦 전략이란 1989년 천안문사태와 동구 및 소련 등 사회주의권의 대변혁, 그리고 미국과 서방세계의 대중국 압력에 직면하여 덩샤오핑이 제시한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이었고, 그것은 “냉정히 관찰하고, 현실 기반을 튼튼히 하며, 침착하게 대처하고, 기회를 기다리면서 앞장 서는 일을 피할 것”(冷靜觀察 `穩住陣脚 `沉着應付 `韜光養晦....決不當頭)등으로 요약되는 국내외적인 체제위기에 직면한 중국의 방어적인 대외정책 가이드라인이었다.¹²³⁾ 이런 방어적인 외교노선에 따라 덩샤오핑-장쩌민 시대에 중국은 대체로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과의 정면 대결이나 갈등을 피하려 하였고,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서방세계의 중국 내정 간섭도 배제하려고 했지만, 동시에 중국이 다른 나라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회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제4세대 지도부의 등장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를 원했고, 이는 ‘평화굴기’¹²⁴⁾와 ‘책임대국론’으로 대표되는 능동적인 외교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평화굴기이다. 원래 평화굴기는 중공중앙당교 전상무부교장인 정비젠이 최초로 주장한 이론인데, 2002년 말 중공

123) 韜光養晦 (<http://baike.baidu.com/view/88881.htm>)

124) 평화굴기에 대한 개념은 후진타오의 절친한 친구인 쟁뽀젠에 의해 고안되었다고 한다. 2002년 12월 미국을 방문하여 미-중 관계에 대한 구상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2003년 11월에 개최된 보아오포럼에서 최초로 이 개념을 제시하였고 같은해 12월에 원자바오 총리가 하버드 대학에서 이 이론에 대한 연설을 함으로써 중국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Bonnie S. Glaser and Evans S. Medeiros, “The Changing Ecology of Foreign Policy Making in China: The Ascension and Demise of the theory of ‘Peaceful Rise’”, *The China Quarterly*, Vol.190(2007), pp.294-298

중앙당교 부교장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라이스, 키신저, 브레제진스키 등 미국 요인들을 만나면서 그들로부터 중국위협론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귀국후 평화굴기 개념을 대외적으로 사용할 것을 건의해서 중국의 국가의지가 되었고, 이 개념은 서구의 중국위협론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¹²⁵⁾ 평화굴기의 의미에 대해서 5가지 측면을 강조하였다. ①국제사회의 평화, ②개혁과 체제 개편, ③개방정책과 호혜적인 경제교류, ④수 세대에 걸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⑤중국은 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며 내정불간섭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2004년 4월 24일에 개최된 보아오포럼에서 후진타오는 평화굴기라는 용어 대신 평화발전을 강조하면서 ‘3린’의 대외정책을 발표하였다.¹²⁶⁾ 3린 정책은 목린(睦隣: 선린관계 유지), 안린(安隣: 주변정세의 안정 유지), 부린(富隣: 주변국들과 공동 발전 추구)을 말하며 중국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정된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변국가와 관계개선에 노력하고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전략의 변화는 경제성적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적 이벤트의 유치가 중국에게 상당한 자신감을 주었고, 또한 이에 상응한 국제적 위상 정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²⁷⁾ ‘책임대국’인 중국은 평화와 발전¹²⁸⁾이라는 시대적 주제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수세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인 대외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책임대국, 화평굴기는 중국위협론에 대한 대응이론으로 나왔지만 오히려 세계 각국에 의해 또 다른 ‘중국위협론’ 내지는 ‘중국의 팽창주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개념은 전통적 안보분야에서 중국이 주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정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대외개방 정책을 견지하고 평등호혜에 기초하여 세계의 모든 국가와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며, 중국의 발전은 화평역량의 증대로서 주변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이익에 손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중국의 발전에서 서로 다른 정도의 이익을 얻도록 할 것이며,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중국은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유리함을 주장하고 있다.¹²⁹⁾

125) 박병백, “중국화평굴기론”, 『현대중국연구』, 제10집 2호, (2009), p.83.

126)胡锦涛总书记在2004年博鳌亚洲论坛年会开幕式上的演讲全文(二) (<http://www.51test.net/show.asp?id=320966&Page=2>)

127) 전가림, “후진타오체제의 정치·경제·외교적 특징”, 『동서연구』, 제18권 제2호, (2006), p.78.

128) 중국의 지도부는 처음에 平和崛起를 주장하다가 2004년 4월부터 平和發展으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129)“曹剛川在泰國演講：中國決心以和平手段完成崛起”，『中新社』, 2004년 3월 31일자,

2. 강대국 외교

장쩌민 체제 후기에 들어서는 등샤오핑 시대의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대외정책에서 점차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자세로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는 '90년대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실현, 중국 사회의 자신감과 정체성 모색 노력을 반영하는 중화민족주의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런 강대국으로서 책임 있는 중국의 관점에서 중국의 국제적 역할과 기능을 재 정의하려는 경향은 장쩌민 시대를 계승하면서도 장쩌민 시대를 극복하려는 후진타오 시대가 개막되면서 더욱 구체적인 정책 변화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1999년만 해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 경제대국의 자리에 머물렀지만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을 차례로 제치고 2006년에는 4위로 올라섰다. 또 2007년에는 독일을 넘어서 3위에 올라섰다. 또한 2009년 기준으로 GDP가 미국의 34.4% 수준이지만 2015년에는 51.7%까지 성장, 미국과 함께 'G2'로서 입지를 굳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¹³⁰⁾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면서 미국에 이은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예정이다.¹³¹⁾ 성장률에서도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도 2009년 전년대비 GDP성장률8.7%, 2010년도에는 GDP성장률9.5%를 예상¹³²⁾하고 있다. 이러한 비약적 경제발전의 시대를 대표하는 중국의 제4세대와 제5세대 지식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등샤오핑과 장쩌민의 제2세대와 제3세대에 비해 국제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대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성공은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인들의 자신감을 높이게 되었고, 그것은 미국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中國可以說不)이 되어야 한다는 중화민족주의 정서로 표출되었다. 중국지도자들은 고도성장에 고무된 중국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강대국으로 행동해야 하지만, 동시에 부강한 중국의 등장에 대한 경계심으로 완화시키고 미국 및 서방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과거 역사의 예에서

130)중국GDP 올해일본 제치고 2위 된다 (<http://news.mk.co.kr/v2/view.php?year=2010&no=254265>)

131)일본은 1968년 서독을 제치면서 차지한 세계 2위 GDP자리를 2010년 중국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162202275&code=970204)

132)세계은행, 올해 중국 GDP성장 9.5% 전망(http://china.naeil.com/news/news_view.asp/nnum=24366)

보면 독일과 일본이 신흥강대국으로서 기존질서에 참여하려고 할 때 기존 강대국이 연대하여 방해했던 역사적 경험 때문에 중국은 미국을 배제하기 보다는 열린 지역주의를 통해 미국을 포용하려 했으며 이는 기존질서에의 연착륙의 참여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¹³³⁾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종합국력이 성장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외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시장과 관리운영의 능력은 아직까지 중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진타오는 강대국과 갈등 대립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조화세계, 평화적 부상 또는 평화와 발전을 제창하면서 책임있는 강대국 중국의 등장을 선언하면서도 신흥 강대국 중국의 등장 과정은 평화적이며, 또 중국이 추구하는 세계질서도 조화로운 세계 건설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화려한 경제성장 성적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삶의 질까지 세계 상위권으로 부상한 것은 아니다. 1인당 GDP가 미국이 4만2,240달러, 일본이 3만7,800달러 수준인 반면 중국은 3,600달러 정도다. 지난해 세계 1위 수출국 자리에 오른 중국 경제에 대해 “내수 위주로 성장전략을 전환해 수출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는 지적도 나온다.

2005년 기준 세계 3위지만 종합현대화 수준은 조사국가 108개 국가중 55위에 불과하며, 이는 초등발달국가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2015년이 되어야 1차 현대화가 완성된다고 한다.¹³⁴⁾ 그러나 중국이 경제력 규모면에서 경제대국이지만 21세기의 가장 선진적인 경제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 개혁개방을 심화확대하면서 경제선진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제평화가 지속되어야 하며,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속에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또한 미국이 북한핵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북한을 다자회담에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하고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중국역할을 인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유지하고 대만문제에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의 고민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133) 김재철, “중국의 강대국 대외정책”, 『국가전략』, 제11권 3호, (2005), p.135.

134) “中國現代化戰略研究課題組”, 『中國現代化報告 2008-國際現代化研究 下篇』, (北京: 北京大學出版部, 2008) 제5장 참조

도 미국의 일방주의와 미국식 화평연변 압력에 대항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인권과 민주화, 그리고 와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자유경제체제의 전면적 수용을 압박하는 미국과 서방세계에 대항하면서 미국과 서방세계와의 협력적 관계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21세기 중국 외교정책의 딜레마이며 후진타오가 풀어야 할 과제이며 후진타오 이후 등장하는 5세대 지도자들의 과제이다.

3. 다자외교

후진타오도 장쩌민과 같이 주변국 외교를 중시하면 다자외교를 추진하였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전략적인 취약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갱신해 가는 중국경제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긴장도는 기회로 판단되기 보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¹³⁵⁾ 중국은 국제사회의 자국에 대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일방적 주도로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다원적 국제질서의 구축과 개혁·개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변정세의 평화·안정구축,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개혁·개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평화적인 주변환경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정세 및 대외환경의 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후진타오는 연성권력의 발현이라 할 수 있는 다자외교정책노선을 중시했다. 일국의 국가정책을 국제질서에 대한 혁명적 변화보다는 기존 체제의 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따라서 국제환경을 대립보다는 협력의 장을 모색하고 갈등보다는 이해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경성권력보다는 연성권력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말해 이미지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신안보관(新安保觀)’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환경은 중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국제정치경제에 대한 ‘신질서론’이나 ‘책임대국론’, ‘평화발전론’ 등과 같은 이론적 논리로 나타났다. 그 결과 중국에 대한 우려는 상당정도 해소되었고, 중국은 지역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¹³⁶⁾ 중국은 세계적 강대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35) 전가림, “후진타오체제의 정치경제·외교적 특징”, 『동서연구』, 제18권 제2호, (2006), p.83.

우선 동아시아 지역강대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선행적 목표라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대테러전으로 아프간과 중동에 신경을 쓰는 동안 중국은 힘을 기르면서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증대해왔다. 2003년 말 중국은 ASEAN과 우호·협력조약에서명했으며(10+1), 중국·중동협력포럼(Sino·ArabStates Cooperation Forum)과 중국·아프리카포럼의 발족, 상하이협력기구의 주축을 통한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강화, 북핵 6자회담과 동아시아 정상회담,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을 약화시키기 위한 행동강령에의 서명 등에서 중국의 주도적 역할은 다자외교에 의한 연성권력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결과 중국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었고, 중국은 지역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되었다.¹³⁷⁾

4. 경제외교와 소프트파워외교

가. 경제외교와 소프트파워외교 배경

후진타오의 대외정책의 중 장쩌민과 구별되는 것은 경제외교를 통한 에너지 확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개혁개방이후 경제적 고속성장과 냉전체제의 해소로 인해 기존의 정치·안보이익 중심의 대외정책에서 국가경제이익의 대외정책으로 변화된 것이다. 2004년 중국지도부에 의해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후 4세대 신지도부 출범이후 중국외교의 핵심이 되었다.¹³⁸⁾

경제외교란 국가가 자국의 경제와 대외경제무역과의 관계발전을 통하여 경제와 무역수단을 운용함으로써 대외전략을 실현하는 외교활동으로서 국가지도자나 정부관료 및 전문적인 외교기구들이 본국의 경제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대외경제교유 정책과 행위를 제공하거나 국가의 외교목표실현을 위해 진행하는 경제활동의 내용을 포함한다.¹³⁹⁾ 2005년 후진타오 주석은 총9회에 걸쳐 20개국을, 원자바오 총리는 3회에 걸쳐 10개국을 방문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이익의 확대는 물론 에너지 수급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국이 경제외교를 중시하는 이유는 국제적, 국내적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국제적 배경은 첫째, 냉전체제의 종식과 이에

136) Susan Lawrence, "Primed for Powe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41, 2002년 2월 22일자

137) 조영남, "중국의 연성권력론 I:수용과 전개", 『미래전략연구원 논단』, 2005년 5월 9일자

138) 신중호, "후진타오체제 중국 경제외교의 대외전략적 함의", 『중국연구』, 제37권, (2006), p.398.

139) 신중호, 전제서, p.399.

따른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 증대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래 국제사회는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전통적인 군사, 안보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게 되었다. 둘째는 세계화로 인한 국가간 상호의존의 증대되었고, 개혁·개방 이후에 대외개방과 대외무역의존도 상승,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공헌, 주요자원 및 원자재의 대외의존 심화, 주요산업의 지나친 수출의존, 국가간 무역마찰의 증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경제외교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국내적 배경으로는 첫째, 중국의 정치, 안보 이익과 경제이익의 우선순위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개혁개방 이전까지는 중국지도부가 정치·안보적 이익을 경제적 이익보다 더 고려하였으나 개혁개방 이후 대외관계에서 경제외교의 역할과 지위는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다. 둘째, 후진타오체제의 경제발전 전략의 전환을 들 수 있는데 2006년 3월 제10기 전인대 회의에서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요강을 확정했다. 계획요강의 내용 중 자원이용의 효율성제고를 통한 GDP 대비 에너지 소모량 20% 감소라는 목표는 중국의 경제외교활동 강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결국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경제발전이 대외관계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면 최근에는 전방위적인 외교활동의 강화로 경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와 외교의 상호결합’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 경제외교 강화의 목표는 WTO가입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경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전방위적인 적극적 외교활동을 통한 중국기업들의 ‘走出去’ (해외직접투자) 전략추진을 지원해왔고 평화적 부상과 중국의 소프트파워 형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경제외교를 활용하고 있다.¹⁴⁰⁾

또한 중국의 고도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없이는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후진타오 등장이후 지도부의 해외순방은 산유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프트 파워¹⁴¹⁾를 통한 소프트 밸런싱은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를 동원한 힘의 균형(hard-balancing) 보다는 외교적 수단과 같은 소프트 파워를 동원해 상대방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 밸런싱은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해 직접적인 대결을 회피하는 것일 뿐 패권국의 영

140) 鄭永年, “中國的經濟外交與和平崛起”, 『聯合早報』, 2004년 2월 10일자

141) Joseph S. Nye에 의하면 소프트파워는 국가의 경제력, 이념(이데올로기)과 문화적 영향력을 말하는 것으로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하드파워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조지프 S. 나이 지음, 홍수원 옮김, 『소프트파워』, (세종연구원, 2004) 참조

향력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하드 밸런싱과 다를 바 없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준 강대국들(도전국가)은 탈냉전이후 초강대국이 된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유엔이나 기타 국제기구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주권국가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려고 하거나, 또는 적대국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국가들과 상호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외교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동맹외교를 견제하려고 한다든가, 그리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 역시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고, 와싱턴 컨센서스에 대비되는 베이징 컨센서스를 제시함으로써 개발도상 국가들의 주권과 특수성을 방어하려 한다는 것이다.

나. 경제외교와 소프트파워외교의 성과

중국의 국제경제 다자기구에 대한 가입 촉진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영향력과 지위도 상승하고 있다. 경제외교 활동 결과 2001년 WTO가입과 APEC으로 대표되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다자경제외교 활동이 활발해졌다. 경제외교의 핵심도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 중심으로 펼쳐졌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의 제3대 무역대상국이며, 중국은 최근 미국의 생산설비와 민간항공기를 대량 구매 등 대미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에 종사하는 미국의 대기업중에는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우호적인 집단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적 차원에서 패권적 지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미국과의 정면대결에는 중국 입장에서 역부족이라는 전략적 판단의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EU와의 관계강화를 통해서 ‘다극화’를 위한 노력과 책임대국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2009년 기준 대외교역량이 395억 달러에 달하며 수출은 228억달러, 수입은 166억 달러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¹⁴²⁾ 한편 2006년 3월 중·러 정상회담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개발 및 탐사, 수송망 건설, 전력 및 원자력 발전 협력 등의 에너지 관련 협력을 해오고 있다. 양국은 서시베리아 가스전에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 지역으로 연결되는 총 길이 3,000km가스관을 건설, 연간 300억~400억m³의 가스공급에 합

142) 2009년 한국과의 무역규모는 1409억 달러이며, 수입 867억 달러, 수출 542억 달러로 한국에 대해 약 32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의하였다. 중국은 냉전시기 이데올로기와 반패권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제3세계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으로 구성된 제3세계국가들은 중국의 독립자주의 평화외교정책의 중요한 협력대상국 역할을 해왔다. 중국과 개발도상국들은 국제무대에서의 근본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고 협력의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상호보충적인 관계가 가능했다. 2004년 ‘引進來’와 ‘走出去’가 상호 결합된 대외개방전략의 추진과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경제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과 교역규모 확대와 무역불균형 해소 및 국제기구에서의 개발도상국들의 이익보호, 향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및 협력강화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표 3> 중국석유수입량과 소비총량

中国石化股份有限公司信息部 国际石油经济
단위 만톤

년도	총소비량	수입
2009	40,837.5	21,838
2008	39760	20,067
2007	37500	19,680
2006	34655	13,880
2005	32730	15,824.96
2004	29182.7	12,000
2003	26700	9,112
2002	24570	6,940.77

중국 경제외교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에너지외교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1993년 원유수입국으로 전락한 후 2004년 1.2억 톤을 수입하여, 수입의존도가 41%에 달했고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에는 소비량의 53%를 수입했다. 후진타오 등장이후 전개된 국가지도부의 해외순방은 모두 산유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외교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는 아프리카 수단의 유전개발 컨소시엄지분 40%를 매입하고 2억 1500억만 달러의 석유수출 터미널도 건설함과 동시에, 가봉과 나이지리아도 에너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 외교를 펼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확보에 대한 노력은 기존의 중국외교에서 단순 수교국으로 분리되었던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의 중국

외교에서 중요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감소에 편승하여 중국의 이들 지역에서의 영향력과 지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외교도 결국은 세계에서 에너지 소모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갈등을 보이는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석유수급을 위해 전세계적 차원에서 군사행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전쟁이 미국의 석유공급 확보와 관련이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자신들의 세력권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에 대항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에너지 외교 전개는 미국과의 충돌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후진타오정부의 '정상외교' 형식을 통한 전방위적 경제외교의 전개는 중국의 국가경제이익의 보장과 '走出去' 전략에 대한 지원,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위한 주요수단으로서의 기능,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라는 목표달성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중국의 과도한 에너지외교의 집착¹⁴³⁾은 그동안 중국의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주창해온 평화발전과 책임대국의 이미지를 스스로 손상시키고 '중국위협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아프리카 수단의 수출 원유 중 절반을 수입하는 중국이 다르푸르 인종 학살에 눈을 감으면서 유엔안보리의 제재에 반대하는 것도 중국의 자원외교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평화적 부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나 '중국위협론'을 불식하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조화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규범과 제도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¹⁴⁴⁾

중국은 한편으로 미국과 서방세계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력을 축적하려고 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 서방세계의 인권과 민주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주권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다자주의 외교와 상호 호혜적 동반자 관계, 그리고 국제여론을 통한 미국의 패권 견제를 시도하는 소프트 밸런싱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 파워 외교로서 중국은 2004년 경제외교에 대한 강조와 함께 '문화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개발도상국과의 경제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만들었다.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권위주의 체제하 시장경제발전'이라는 베이징 합의가 개발도상국들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2004년 한국

143) 아프리카 수단의 수출 원유 중 절반을 수입하는 중국이 다르푸르 인종학살에 눈을 감으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반대하는 것은 중국의 적극적인 자원외교라 할 수 있고, 최근 미얀마의 송유관 건설 및 유전 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44) 신중호, 전게서, p.412.

을 시작으로 현재 43개의 ‘공자아카데미’가 성립되어 중국문화 전파에 공헌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으로 소프프 밸런싱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힘의 대결을 피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적인 측면에서 경제·에너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증대시켜 역내 안정을 도모하고 SCO라는 다자기구를 통해 경제협력¹⁴⁵⁾과 해당기구의 회원국들간의 소위 비전통안보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안보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강대국 간 경쟁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하드파워를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앞으로 강대국 간(미·중)의 경쟁은 제도·문화·규범 등 비물질적 자원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러한 인식하에 기존 하드 파워적인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국제규범의 강조, 다자주의의 중시,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 개발도상국·주변국과의 관계개선 등을 통해 국제체제에서 소프트 파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145) 2008년 10월 30일 중국 총리 원자바오는 SCO 제7차 총리회의에서 회원국들간의 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해 회원국들간의 투자와 대형 경제·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무역투자 환경의 개선과 무역투자의 편리화를 주문했다. 중국은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우대차관을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SCO발전기금’을 설립한 후 스타트업 펀드 기부를 적극적으로 고려가혹 있다고 밝혔다.(上海合作組織成員國第7次總會議舉行: 溫家寶出席並講話 『人民日報』 2008年 10月 30日.)

6장 결론

장쩌민 시기의 중국외교는 1989년 천안문 사태가 발생, 1995년 대만총통 이등휘의 방미, 1999년 주유고 중국대사관에 미사일 폭격사건 등에 있어서 국가주권,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도광양회와 유소작위의 대외정책을 펼쳤고 주권과 통일문제에 대한 불양보를 견지했고, 정치·안보분야에 치중했다.¹⁴⁶⁾ 중국의 국가국력이 확대되면서 서방국가들과 주변국가들에게 중국위협론을 초래하였다.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을 중심과제로 정하고 그중에서 경제건설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환경을 중국에 유리하게 만들면서 선진국, 특히 미국에 대한 적극적 외교를 했다. 발전도상국에 대해서는 상호이익과 혜택을 강조하면서 정치, 경제의 상호작용을 강화하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세계 다자기구에 참여하면서 선진국의 기술, 자본을 유치하고 시장을 개척해 나갔다. 중국을 세계체제외 국가에서 세계체제내 국가로 전환시켰다.¹⁴⁷⁾ 장쩌민 시대는 경제발전 목적으로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1995년 이등휘 방미, 1999년 주유고대사관 미사일포격사건, 미국의 대만무기판매 등은 중국의 대미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후진타오시대에 들어와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심화시켜 거대한 성과를 이뤄냈다. 경제성장은 평균 GDP 9% 이상으로 세계경제의 침체속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달성해 냈다. 이미 경제총규모면에서 2010년에는 일본을 능가해 세계 제2위로 부상했다. 또한 종합국력은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지역내 세력판도를 바꾸어 나가는 등 국제사회의 구조를 변화시켜 나갔다.

후진타오는 책임지는 대국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평화발전과 화해세계의 대외정책을 제창했다. 다시말해 책임지는 대국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중국을 만들어 갔다. 이렇게 형성된 국제사회의 신뢰를 통해 강대국에 대해서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주변국과 발전도상국이 참여하는 지역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력을 하였고, 또한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중국위협론을 지양하고 중국기회론의 범위와 효과를 확대시켜 나갔다. 이를 신안보관,

146) 杨洁勉, “新中国外交60年: 实践特点和理念演变”, 『国际展望』, 第1期, (2009), p.2.

147) 时殷弘, “中国的变迁与中国外交战略分析”, 『国际政治研究』, 第1期, (2006), p.35.

신문명관, 발전관이라고 한다. 그는 중국발전을 위해 전략적, 시간적 공간을 확대해 나갔으며 평화발전을 통해서 외부세력들에 대해 중국에 대한 의심과 경계심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을 안심시켰다. 또한 효율적 다자주의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 및 추진하고 국제규칙의 제정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각국의 평등한 참여, 협력공영의 강조를 통해 평화발전을 실현하려 했다. 후진타오는 첫째 장쩌민시대의 도광양회¹⁴⁸⁾와 유소작위¹⁴⁹⁾를 바탕으로 더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국의 책임을 부담했고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의 주최국으로서 적극적 중재에 나섰다, 인도-파키스탄 간의 소통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중동과 아프리카에 특사를 임명하여 파견했다. 둘째, 전체적으로 대외정책을 심화시켰으며 전반적으로 통일된 계획하에 실행하였다. 인본, 인문, 공공, 민간, 학술 등의 다양한 분야의 외교까지 확대시켜 나갔다. 셋째,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특히 경제위기에 대해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힘과 신흥공업국인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여러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다극화를 가속추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했다. 넷째, 평화의 지속과 공동번영하는 화해세계를 추진하며 다양한 발전방향을 탐색했다. 다양한 문명의 평화공존과 발전방법을 찾고 가치관의 심화를 통해 더 깊은 공동인식을 달성하려 했다. 특색을 가진 중국대외정책은 소프트파워 뿐만 아니라 강해지고 있는 하드파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와 역할을 확대강화시켰다.

중국대외정책 방향은 단일형 외교에서 복잡형 외교로 점차 전환하고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은 과학적, 합리적, 제도화되어가고 있다. 대외정책방향의 끊임없는 조정을 통해서 다원화된 외교로 전환되고 전통적 정치 안보영역에서 좀 더 구체적이며 다양한 정치영역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피동적 반응에서 자발적 대응으로 근본적 변화가 있었다.¹⁵⁰⁾ 대외정책은 범위는 장쩌민 시대 보다 더 확대되어 지구화, 구역화, 정보화로 특징지워지는 국제형세에 적응하기 위해 점차 다단계, 정방위, 대영역과 전체적이며 통일적인 외교방향을 형성했다. 전통적 정치·안보외교뿐만 아니라 정당, 의회, 경제, 군사, 문화, 환경, 인문, 공공, 민간 등의 외교분야의 신영역을 추가했다. 장쩌민 시대의 대외정책의 핵심기조는 경제발전을

148) 자신의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

149) 필요할 때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

150) 杨洁勉, 전계서, p.6.

위한 것이었다면 후진타오시대의 대외정책은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국제체제내에서 중국을 강대국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적극적 경제외교는 중국외교 방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외경제활동의 증가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경제외교는 양자와 다자영역에서 그 범위가 매우 확대되었다. 세계무역과 투자 자유와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경제체제의 개혁과 조정과정에서 핵심 국가가 되었다. 또한 군사외교도 확대되어 능력의 부상과 함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연합군사훈련, 군함상호방문, 해적소탕, 인도주의 구원, 재해원조 등의 평화적 사명과 군사력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있다. 국방백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국방부 홍보팀을 설립하여 중국 군사위협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외정책 결정체제가 다원화, 분권화, 제도화, 전문화로 전화되는 근본적 변화가 있었다. 외교총괄과 상호간조화가 강조되고 전문가와 학자, 씽크탱크(두뇌집단)의 의견을 중시했다. 공공외교와 인본외교, 국제사회에서 공통된 가치관 인식의 제공에 노력했다.¹⁵¹⁾ 중국은 두가지 분야에서 강해야 했다. 첫째는 발언권을 강화시켜야 했고 둘째는 억제력을 가져야 했다. 전자는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것이며 후자는 하드파워를 강화시켜 전략적 발전을 달성하고 평화유지도 해야 했다. 또한 평화발전 실현하면서도 타국가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협상과 타협을 반복했다. 중국은 타국가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지만, 타국가는 중국을 무시하는 약속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은 자국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력을 갖추어야 했다. 설득하는 능력인 발언권과, 제압하는 능력인 억제력을 바탕으로 타국을 도의적으로 인도하고 이해를 따지며 실력을 발휘하며 중국 발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다.¹⁵²⁾ 후진타오시기는 중국경제의 고속발전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통해 국제조직과 기구에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확대시켜, 세계체제의 변화를 추진하여 중국 경제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만들었다. 급속한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는 점점 강해져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종합국력이 강해졌으며, 장쩌민 시대에 비해 대외정책 방향이 경제발전중심이 아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중국의 급속한 발전과 신흥공업국으로 부상은 세계체제의 권력분포를 변화시켰다. 세계화 시대의 국가경제와 안보의 주요특징은 바로 협력과 충돌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에 대

151) 杨洁勉, 전게서, pp.4-6.

152) 江凌飞, “国际大变局下的大国战略选择”, 『当代世界』, (2010. 1), p.20.

한 기대는 늘었지만 중국과의 마찰은 증대되었다. 중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평화로운 국제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경제적 힘은 부족했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체제를 변화시켜 주도할 필요성이 있었다.

다음은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대외정책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장쩌민은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했고, 후진타오는 성장한 중국경제를 배경으로 평화굴기, 평화발전의 대외정책을 실현해 나갔다. 장쩌민은 국제정세를 평화와 발전의 단계로 인식하고 중국의 경제발전을 통한 경제적 부흥을 바탕으로 종합국력신장 및 대국화를 추구했다. 장쩌민을 비롯한 3세대 지도부는 신안전관을 수립하였다. 신안보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력이라는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국가안보를 고려할 때 종래와 같은 힘의 우위와 군사동맹, 체제와 이데올로기적 입장보다는 공통된 안보이익과 상호신뢰, 상호이익에 기초한 평화와 경제적 협력, 그리고 공동발전이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을 말한다.¹⁵³⁾ 또한 ‘중국위협론’을 제거하기 위해서 “‘韜光養晦論’을 제기하여 현존 최강대국인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과의 정면대결이나 갈등을 피하면서 오히려 중국의 부상이 국제사회의 공동번영 및 동아시아 지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중국기회론을 주장해 나갔다. 그러나 장쩌민의 ‘중국위협론’을 ‘중국기회론’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4세대 지도자인 후진타오는 중국의 국력신장에 따른 자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평화를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장쩌민 시대에는 강대국 중국의 책임보다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편이었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 반패권주의를 강조하고, 거의 모든 나라와의 우호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전방위 외교, 동반자외교를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자국의 실리는 챙기고 책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이기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반면, 후진타오는 강력해진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역할과 기대가 높아지고,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소극적 대외정책 노선에서 지양하고 평화발전이라는 구호 하에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구

153) 이계희, “중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정책”, 통일문제연구, 4권 1호(통권 제31호), (2002), p.38.

사했다.

둘째, 대외정책결정과정의 변화이다. 장쩌민 시대에는 정책결정과정에 집단적 결정방식이 도입되었고, 후진타오 시대에는 전문관료, 학자 등 다양한 세력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였다. 중국의 대외정책결정은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대에는 엄격한 절차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최고지도자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장쩌민 시대의 대외정책결정은 집단적 결정방식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후진타오 시대에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후진타오는 중요한 대외정책을 결정하는데 직접 나서서 챙기는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지도자들이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방문외교를 했던 것에 비하면 후진타오는 국가이익과 관련된 대부분의 대외정책을 직접 챙겼다. 활발하고 빈번한 정상외교는 의례적 상징적 의미를 지양하고 실용적 실질적 외교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후진타오의 대외정책 스타일은 중국 대외정책의 영향력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슈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는데 기여했다.¹⁵⁴⁾ 예를 들면, 중·러 국가원수와 정부원수간 정기회견은 양국간의 우호관계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추진력을 발휘했다. 중·미관계에 있어서도 양국간의 마찰이 증가했지만 양국 정상간의 회견은 오히려 더 빈번해졌다. 2005년 후진타오 주석은 부시와 6회에 걸쳐 회견을 했고, 오바마 정부와는 이미 7번이나 회담을 가졌다. 결과적으로 정상간 직접면담 또는 직통전화를 통해서 이슈가 발생할 시 곧바로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국제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후진타오 시기는 대외관계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더 많아졌다.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는 국내기관이 더 많아져서 중앙지도층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기관간 다양한 이익을 중재하고 조정, 조화를 유도하였으며 정부내 각 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기관 간에도 중재역할을 하였다. 대외정책의 범위가 점차,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안정 등의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총체외교, 종합외교를 형성했다. 실행업무에 따라 외교부의 직능도 변화하였다. 장쩌민 시대 외교부는 대외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였다면 후진타오 시대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구체적 정책결정과정에 여러 기구가 참여하게 되고, 집행하고 있다. 특히 전문기술분야의 대외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교부의 직능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교부는 원래의 직능은 간소하지만 정상외교의 성공을 위

154) 张清敏, “社会变迁背景下的中国外交决策评析”, 『国际政治研究』, 第1期, (2006), p.52.

해 많은 준비를 해야 했으며 대외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관점과 주장간의 대립을 조정, 협상, 의견수렴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외교부는 대외정책에 있어 조정이 필요한 기구지만 한편으로는 조정을 책임지는 기구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해외투자 중국기업, 대외원조, 민간외교경제협력, 해외유학단체, 대외문화교류, 중국인 해외여행과 영사보호 등을 책임지는 기구이다. 또한 외교부는 지방 외사업무에 대해서도 전문적 지도를 하고 있다. 대외정책과 관련된 중앙기구와 지방기구, 사회기구간의 정책결정과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성과 권위성, 확실성, 전문성을 확보해야 했다. 또한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공공여론이 활발하게 형성되었고,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인식과 주장도 대외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데 조어도 어선 나포사건으로 유발된 반일감정 때문에 중국의 대일본 외교정책은 경제적 요인의 유불리를 떠나 강한 외교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⁵⁵⁾

셋째,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강력해진 종합국력을 바탕으로 책임지는 강대국 대외정책을 견지해왔다. 장쩌민 시대 중국은 지속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외교정책의 기본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정책은 복잡하고도 변덕스러웠다. 미국내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때로는 중국위협론이 지배적인 정책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중국과의 협력론이 힘을 얻어 이를 바탕으로 외교정책이 수립되기도 하였다. 부시정부에 들어와서도 초기에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고 공공연하게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고, 대만에 대규모 무기판매를 단행함으로써 중국을 면전에서 모욕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부시의 정책은 9·11테러이후 급변했다. 9·11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반테러전쟁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중국 위협론보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게 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아프카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이르는 반테러전쟁 과정에 중국의 암묵적 묵인과 지원이 필요했으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이라크전쟁을 통해서 잘 드러난 것처럼 과거의 동맹국가들, 이를테면 독일이나 프랑스마저 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하는 마당에 부시행정부는 중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세계경제와 미국 경제에서 중국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155) 张清敏, 전계서, pp.53-55.

후진타오시대에 들어오면서 비약적 경제발전의 시대를 대표하는 중국의 제4세대와 제5세대 지식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등샤오핑과 장쩌민의 제2세대와 제3세대에 비해 국제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대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156)

넷째,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주변국가는 중국 중흥의 바탕이며, 중국위협론을 잠재울 수 있는 인식하에 주변국외교를 강화하였다.

장쩌민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체제에 진입해야 했고, 이를 위해 임중도원¹⁵⁷⁾의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조성해야 했다. 현 시기 중국 대외정책의 중심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이었지만 점차 그 중심은 주변국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아세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시켜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구역내 관계를 규칙화 해서 구역내 국가들이 중국 경제에 의존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신뢰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책임있는 대국의 역할을 실현해서 중국굴기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중국은 민족분열을 반대하고 국가통일 등 핵심이익을 주변국가와의 평화를 보장함으로써 순조롭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남티벳지역에서 인도와 국경선 문제로 충돌했으나 지금은 소강상태로서 주변국가와 최대한의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한다.

후진타오는 아시아를 비롯한 주변국이 중국 부흥의 지역배경이라고 인식하면서 중국이 추국하는 평화발전을 달성한 이후 세계 대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았다. 국제체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에 아시아 내부에서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려고 하였다.¹⁵⁸⁾ 세계발전방향은 대륙문명에서 해양문명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를 해양상업시대, 해양공업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요즘의 세계 주요 선진국은 해양발전전략을 국가의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해양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중국 또한 중국안보영역에서 해양발전이 중심이 되고 있다. 중·일사이의 조어도 문

156) 이와같은 중국의 종합국력이 부단히 제고되면서 중국인들이 점점 더 국제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崔啓明, “中國應有怎樣的對外心態,” 『環球時報』, 2003년 9월 19일, 『人民日報』, 2003년9월22 참조; <http://www.people.com.cn/GB/paper68/10211/934521.html>

157) 任重道远은 맡은바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기만 하다는 뜻이다.

158) 門洪華, “中國的東亞戰略的展開”, 『當代亞太』, 第1期, (2009), p.65.

제, 동남아 국가들과의 남사군도 충돌이 그러한 예이다.

다섯째, 장쩌민은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정책을 구사했지만 후진타오는 발전된 경제가 중국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장쩌민 시대는 경제발전을 외교정책의 주요목표로 삼았지만 후진타오 시대에 들어와서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에 영향력과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중국외교의 신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미국공업설비와 대형민간항공기의 대규모 특별구매가 있었고, 프랑스의 경우 달라이라마의 프랑스 방문허용에 대한 중국측의 반대표시로 Airbus 100대의 구매계약을 취소하고 중국상업대표단의 프랑스 방문을 불허했지만 타유럽국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실시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제 첨단군사장비를 구매했으며, 대규모 에너지 무역 등을 통해 러시아와 상호우호관계를 강화시켰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식량과 석유의 지속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북한을 압박하여 6자회담의 성과를 가져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있었으며 최근에는 나진항 이용권을 확보하여 과거 일본수출에 2-3일의 소요 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였으며 북한 지역의 지하자원 채굴권과 개발권을 가져옴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진타오 시대에 들어와 소프트파워 외교를 강화하였다.

장쩌민 시대와 달리 후진타오는 소프트파워의 외교정책을 추진했다. 최근 인문외교는 중국 외교 중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이다. 문화외교는 국가의 중요한 소프트파워의 구성요소로서 문화년, 문화절을 주최하고 있으며, 공자학원과 해외문화센터 설립, 북경올림픽 개최, 상해엑스포 다양한 문화관련 행사를 통해, 세계문화와 중국문화의 교류를 추진했다. 중외청년우호교류 등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하였고 소프트파워의 발전은 중국외교에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소프트 파워는 종합국력에 중요한 분야로서 비무력 위협과 경제원조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비물질적 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대외정책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소프트파워는 문화외교, 칼럼외교, 대외원조외교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해되어 왔다. 최근 경제위기 발생 이후 다자칼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하고 있으며, 참여국가와 문제되고 있는 긴급한 현안을 협상과 토론을 통해 해결해오고 있다. 대외원조도 국가 소프트파워 구성의 중요 요소이

다. 중국의 종합국력이 성장함으로써 대외원조의 범위와 양이 증가했다. 발전도상국의 관리와 기술요원에 대한 훈련 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발전도상국의 채무를 감면해 주었고 재해 시 매우 신속한 원조와 의료팀을 파견해 주었다. 적극적 의제외교를 통해 발언권을 강화해왔다.¹⁵⁹⁾ 의제외교란 긴급한 국제 이슈에 대해 참여와 현안의 창조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동안 중국은 국가국력성장에 따라 국제문화구조와 발언권의 약세지위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국제체제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동시에 국제정치경제질서에 과거 피동적 지위에서 벗어나 능동적 적극적 지위로 전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아프리카 북경 정상회담, 2008년 북경 올림픽, 상해엑스포, 아시아올림픽 행사개최, 세계싱크탱크 정상회담 등은 중국 자신에 의해 조성한 경험이었다. 또한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 G20정상회담에서 6개항의 주장, 세계기후정상회담에 대선진국 강대국간 논쟁, 중국 철광석 가격문제 담판 등은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확대되고 있는 증거이다.¹⁶⁰⁾

이상으로 중국외교정책에 나타난 흐름을 살펴보았다. 장쩌민은 3세대 지도자로서 중국의 경제발전을 급속하게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장쩌민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비해 권력구조가 취약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성과를 배경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 권력을 안정화 시키려고 하였다. 중국경제의 현대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정치경제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초강국인 미국과의 관계유지가 급선무였다.

반면에 후진타오는 기본적으로 장쩌민의 중국 현대화 정책을 이어받았지만 장쩌민 시대보다 더 강화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근현대 100년동안 강대국에 의해 자존심을 상했던 과거 역사를 극복하고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민족주의의 대두로 장쩌민보다는 훨씬 더 외교정책에 있어 적극성을 가졌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의 경제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형 경제재대국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후진타오 역시 외교정책에 있어 장쩌민에 비해 상대적 적극성을 가지고 있으나 강대국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이념과

159) 孙祥华, “中国新外交：一个领导力的解释模型”, 『外交评论』, 第2期, (2010), p.109.

160) 金灿荣 董春岭/文, “中国外交现状与发展战略”, 『当代世界』, (2009. 9), p.10.

명분이 국내외적 정책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역할을 하고 있던 냉전시대에 중미 관계 개선을 위한 역사적 결정은 마오쩌둥-조우은라이 팀이 임표와 좌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대 초강대국과 모든 적대적 관계를 견지하는 경우 중국이 격계될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명적 발상이었다. 그것은 이념과 명분보다 현실적 국가안보와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형적인 현실주의적 전략의 산물이었다. 탈냉전시대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하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계속하는 것 또한 중국의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외교전략은 국익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지만 한편으로 언제든지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외교정책의 유연성과 실용주의적 성향이 제고된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중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은 여러 가지 점에서 중국의 국익을 증진시켜 주었다. 161) 첫째, 늘어나고 있는 한국의 대중국투자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대한 중국의 대외 경제 의존도를 줄여주었다. 둘째, 동북아시아에서의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중국과 한국은 공동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와 친밀한 관계 유지에 일본이나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정치적 협상능력을 높여주었다. 셋째,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모두 한반도에서의 군비경쟁 종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들의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되었다. 중국의 부상은 개별국가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슈영역에 따라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기회도 될 수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호의존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북한핵문제 해결과정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 중국경제력이 한국을 추월하여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도 있고 북한과의 관계속에서 한반도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다시 개입하여 한국의 선택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 한국은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인 면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등장에 편승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것도 아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부강한 중국의 등장에 순응하고 편승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적절하게 한국의 국익의 고려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미국, 일본 등의 강대국들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전통적 의미의 밸런싱 전략

161)Kornberg Judith F, & Faust John R, 지음, 이진영, 민병오, 조혜경 옮김, 『중국외교정책: 정책·과정·전망』, (서울: 명인문화사, 2008), p.230.

을 구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외적 밸런싱 전략은 상대국을 견제한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지난친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소프트 밸런싱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국문

1) 단행본

- 김하룡, 『중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1986.
-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서울: 나남출판, 1999.
-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 서울: 폴리테이아, 2009.
- 이태한,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 조영남,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 서울: (주)나남, 2008.
- 조순구, 『국제관계론』, 서울: 법문사, 2009.
- 趙全勝 지음, 김태환 역, 『중국의 외교정책』,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1.
- 존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편저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5.
- Kornberg Judith F, & Faust John R, 지음, 이진영, 민병오, 조혜경 옮김, 『중국외교정책: 정책·과정·전망』, 서울: 명인문화사, 2008.
- 하영선 편, 『21세기 한국외교대전략』,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6.

2) 논문

- 강준영, “중국의 정치 개혁”, 헤럴드경제, 2003년 8월 19일자.
- 김승채, “강택민 등장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전망”,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2권 제1호, 1999.
- 김재철, “중국위협론의 한국적 의미,” 『국방학술논총』 제11집(I), 1997.
- _____, “중국의 강대국 대외정책”, 『국가전략』 제11권 3호, 2005.
- 류동원, “강택민시대 중국외교의 난제”,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1집 1호, 2001.
- _____, “21세기 중국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대학정치학회보』, 11집2호, 2003.
- _____, “중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인식과 실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 4호, 2004.
- 박두복, “중국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결과분석: 정치개혁과 대외정책 전망을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3.
- 박병광, “중국의 정상외교과 강대국관계조정”, 『국제정치논총』, 제43집 2호, 2003.
- 박병백, “중국화평굴기론”, 『현대중국연구』 제10집 2호, 2009.
- 신중호, “후진타오체제 중국 경제외교의 대외전략적 함의”, 『중국연구』, 제37권, 2006.
- 오용석, “중국대외정책의 원칙 및 목표의 지속과 변용”, 『중국연구』, 제19집 2000.
- 이경숙, “한국의 대 미국 외교정책” 최종기 편, 『한국외교정책』, 한국국제관계연구소, 1988.
- 이계희, “중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정책”, 『통일문제연구』, 4권 1호(통권 제31호), 2002.
- 전가림, “후진타오체제의 정치·경제·외교적 특징”, 『동서연구』, 제18권 제2호, 2006.
- 조영남, “중국 후진타오-원자바오체제의 등장과 정치개혁: 현황과 전망”, 『현대중국연구』, 제6집 1호, 2004.
- 조영남, “중국제4세대 지도자의 등장과 정책변화”, 미래전략연구원 논단, 2004.
- 조영남, “중국의 연성권력론 I:수용과 전개”, 미래전략연구원 논단, 2005년 5월9일.
- 조현대, “강택민의 방미와 중국의 대외정책”, 북한, 1997년 12월호.
- 주재우, “중국외교정책 결정요인의 시대적 특성 분석”, 『중국연구』, 제34집, 2004.
- 차창훈, “21세기 중국의 외교정책”, 『한국정치외교사 논총』, 제29집 제1호, 2007.
- 한광수, “장쩌민 시대 중·미 관계의 변화와 전망”,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2권 제1호, 1999 .
- 한석희,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시각”, 『한국정치학회보』,

2. 중문

1) 단행본

- 席來旺, 『21世紀中國戰略對策划:外交謀略』, 北京: 洪旗出版社, 1996.
- 鄧小平, 『鄧小平選文輯(1975-1982년)』, 北京: 民族出版社, 1983.
- 鄧小平, “堅持社會主義, 防止和平演變”, 『鄧小平文選, 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 毛澤東, “關於中間地帶和平共處以及中英中美關係問題,”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編, 毛澤東外交文選』,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4.
- 徐 堅 主編, 『國際環境與中國的戰略機遇期』, 北京: 人民出版社, 2004.
- 梁守德, 『國際政治學 概論』,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1994.
- 中國現代化戰略研究課題組, “中國現代化報告 2008-國際現代化研究] 下篇”,
- 楊公素, “中華人民共和國外交理論與實踐”, 北京大學國際關係學院, 北京: 北京大學出版部, 2008.

2) 논문

- 楊浩勉, “新中国外交60年: 实践特点和理念演变”, 『国际展望』, 第1期, 2009.
- 張保民, “中共開放政策所帶來的社會問題”, 『中共問題研究』, 臺灣: 國立政治大學國際關係研究中心, 1992 .
- 陳小功, “世界正處重要的過渡時期,” 『世界知識』, 1992.
- 崔啓明, “中國應有怎樣的對外心態,” 『環球時報』, 2003년 9월 19일.
- 胡鞍綱, “中國90年代後半期腐敗造成的經濟損失,” 『國際經濟論評』, 5-6期, 2001.
- 金灿荣 董春岭/文, “中国外交现状与发展战略”, 『当代世界』, 2009. 9.
- 江凌飞, “国际大变局下的大国战略选择”, 『当代世界』 2010. 1.
- 门洪华, “中国的东亚战略的展开”, 『当代亚太』, 第1期, 2009.
- 时殷弘, “中国的变迁与中国外交战略分析”, 『国际政治研究』, 第1期, 2006.

孙祥华, “中国新外交：一个领导力的解释模型” , 『外交评论』, 第2期, 2010.

张清敏, “社会变迁背景下的中国外交决策评析” , 『国际政治研究』, 第1期, 2006

3. 영문

1) 단행본

Bonnie S. Glaser and Evans S. Medeiros, “The Changing Ecology of Foreign Policy Making in China: The Ascension and Demise of the theory of 'Peaceful Rise” , The China Quarterly ,Vol.190, 2007

Bachman David, “Domestic Sources of Chinese Foreign Policy” , Business Week, 1991년 11월 11일자

Plischke Elmer, Diplomat in Chief: The President at the Summit, Westport: Greenwood Press, 1986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ston University Press, 1996

James N. Rosenau, “Comparing Foreign Policy: Why, What, How” in James N, Rosenau, ed., Comparing Foreign Policies: Theories, Findings and Method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4

Nye Joseph , “Soft Power :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 New York: Public Affairs, April 13, 2004

Samuel S. Kim, “International Structures and Chinese Foreign Policy.” Thomas W. Roninson and David L. Shambaugh(eds.), Chinese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Oxford: Clarendon Press, 1994

Tseting Mao , Long Live the Great Unity of the Chinese People Select Words of Mao Tseting Vol. v, Peking : Foreign Language Press, 1977, 1977

Hays Gries Peter , China's New Nationalism: Pride, Politics, and

- Diplomacy, Baker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 Samuel S. Kim, Chinese Foreign Policy in Theory and Practice
in Samuel S. Kim,ed., China and World, 4th edition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8
- Steven L. Levine, “Perception and Ideology in Chinese Foreign
Policy” , Thomas W. Robinson and David Shambaugh eds,
Chinese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Benjamin I. Schwartz, Communism and China: Ideology in Flux,
Cambridge, Mass: Havard University, 1968

2) 논문

- Bin Yu, “The study of Chinese Foreign Policy : Problems and
Prosoect” , World Politics, Vol.46, No.2, 1994
- Frerdinand Peter, “Regionalism in Gerald Segal ed., Chines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Reform ” , London: Kegan Paul
International, 1990
- Goldstein, Avery, “The Diplomatic Face of China's Grand Strategy: A
Rising Power's Emerging Choice” , The China Quarterly,
Vol.168, 2001
- Michael Ng-Quinn, “The Analytic Study of Chinese Foreign Policy” ,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27, No.2, 1983
- Nye Joseph, “The Rise of China's Soft power” , Wall Street Journal
Asia, December 29, 2005
- Robert L. Suettinger, “The Rise and Descent of 'Peaceful Rise” ,
China Leadership Monitor 12, 2004
- Shambaugh, David. “China 's Security Policy in post-Cold War era” ,
Survival, Vol.34, Issue 2 , Summer 1992
- Tang Tsou and Morton H, Halperin, “Mao Tse-Tung's Revolutionary

Strategy and Peking's International Behavior'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59, No.1, 1965
Whiting, Allen. “Chinese Nationalism and Foreign Policy after Deng” , The China Quarterly, No.142, 1995

4. 신문, 인터넷사이트

『동아일보』 , 1999년 8월 26일자.
『동아일보』 , 2007년 10월 16일자.
『조선일보』 , 1997년 4월 25일자 .
『조선일보』 , 1997년 2월 22일자.
『주간조선』 , 1995년 2월 16일.
『연합뉴스』 , 2000년 10월 16일자.
『연합뉴스』 , 2004년 6월 17일자.
『한겨레신문』 , 1999년 3월 1일자.

『新華社』 , 2004년 3월 14일자.
『人民日報』 , 1997년 9월 21.
『人民日報』 2008年 10月 30日.
『人民日報』 , 2002년 4월 11일자.
『人民日報』 2002년 11월 18일자.
『中國青年報』 , 2002년 4월 11일.
『中新社』 , 2004년 3월 31일자.
『聯合早報』 , 2004년 2월 10일자.
『人民日報』 , 1995년 1월 25일자 社論.
『Far Eastern Economic Review』 , February, 22, 2002.
『South China Morning Post』 , June, 28, 1998.
『South China Morning Post』 , June, 30, 1998 .

韬光养晦(<http://baike.baidu.com/view/88881.htm>)

第六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四次会议简况

(http://www.npc.gov.cn/npc/dbdhy/content_5600.htm)

政改指向权力过分集中 党内民主是重要途径(<http://politics.people.com.cn/GB/1026/6672630.html>)

中国共产党第十四次全国代表大会(http://news.xinhuanet.com/ziliao/2003-01/20/content_697129.htm)

中国共产党第十四届中央委员会历次全体会议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3-01/20/content_697152.htm)

중국민부격차 ‘폭발’ 경고등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420261.html>.)

中國應有怎樣的對外心態<http://www.people.com.cn/GB/paper68/10211/934521.html>

중국 GDP 올해 일본 제치고 2위 된다

(<http://news.mk.co.kr/v2/view.php?year=2010&no=254265>)

中华人民共和国宪法修正案(http://www.npc.gov.cn/npc/flsyywd/xianfa/2010-04/14/content_1567089.htm)

세계은행, 올해 중국 GDP성장 9.5% 전망

(http://china.naeil.com/news/news_view.asp/num=24366)

일본은 1968년 서독을 제치면서 차지한 세계 2위 GDP자리를 2010년 중국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162202275&code=970204)

南海各方行为宣言(<http://baike.baidu.com/view/1780154.htm>)

胡锦涛与普京会谈中俄边界线走向全部确定(http://www.china.com.cn/zhuanti2005/txt/2004-10/14/content_5680145.htm)

锡金(<http://baike.baidu.com/view/19360.htm>)

胡锦涛总书记在2004年博鳌亚洲论坛年会开幕式上的演讲全文(二)(<http://www.51test.net/show.asp?id=320966&Page=2>)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정치학부	학 번	20086674	과 정	석 사
성 명	한글: 양병	한문: 楊兵	영문: Yang, Bing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116-13				
연락처	E-MAIL : yangbin19840601723@hotmail.com				
논 문 제 목	한글 :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대외정책 비교연구 영문 : A Comparative Study on Foreign Policies of Jiang Zemin and Hu Jintao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2010년 2월

저작자: 양 병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